

## 남북한학계의 한국고대사 연구동향과 과제\*

- 2000년 이후 연구를 중심으로 -

전 덕 재\*\*

### Ⅰ 국문초록 Ⅰ

본 논고는 2000년 이후 남북한학계의 한국고대사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통일 이후 한국고대사연구의 과제를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다. 2000년 이전까지 남한에서 삼국 가운데 신라사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2004년과 2005년에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여 고구려사연구가 활성화되었고, 2009년 이후에 충청과 경기지역의 발굴조사가 확대되고, 공주와 부여, 익산의 백제유적지구에 대한 정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백제사연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1990년 이래 북한에서는 고구려와 고조선, 발해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백제와 신라, 가야사연구는 등한시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력사과학』에 게재된 고대사 논문 가운데 고구려와 고조선, 발해사를 다룬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백제사 등을 다룬 논문이 매우 적었던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1993년 단군릉 발굴 이후, 단군이 기원전 30세기 초에 평양에서 고조선을 건국하였고, 기원전 1500년 무렵 전조선과 후조선의 교체기에 고대 노예소유자국가로서 구려와 부여, 진국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원전 277년, 기원전 3세기 전엽, 기원전 1세기 말엽, 기원 1세기 초중엽, 기원 1세기 중엽경에 고구려와 부여, 백제, 신라, 가야가 중세 봉건국가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북한에서는 고조선사를 서술하면서 남한에서 僞書라고 규정한 『규원사화』, 『단기고사』, 『단군세기』 등을 사료로서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몽과 온조가 고구려와 백제를 건국한 연대를 각기 기원전 277년, 기원전 258년이라고 수정한 다음, 이에 맞추어 고구려본기와 백제본기 기록의 기년을 대폭 소급하여 새롭게 조정하였다. 후기신라사와 발해사연구는 맥락상으로 1980년대의 연구와 크게 달라진 측면을 발견할 수 없다. 남한에서 2000년대에 매년 300편 이상,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400여 편 이상, 2015년 이후에는 매년 500편 이상이 넘는 고대사 논문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2000년 이후 남한학계의 한국고대사 연구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몇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남한학계의 연구성과를 정리하면, 첫 번째, 삼국 초기와 고조선, 가야, 부여, 가야의 정치체제를 부체제로 이해하는 연구가 증가하였다는 점, 두 번째,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여 고구려사와 발해사연구가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점, 세 번째, 다량의 목간과 다수의 금석문이 새로 발견되면서 고대사연구의 지평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 네 번째, 고조선의 중심지와 낙랑군의 위치를 둘러싸고 이른바 상고사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이 와중에서 고대사학계에서 연구성과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남한의 이른바 재야사학자들과 북한학계에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 이 연구는 2017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ms8794@chollian.net, dj8794@dankook.ac.kr

강조하면서 고대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향후 남북한 모두 ‘實事求是’와 탈민족주의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고대사상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이 존중되는 학문 풍토를 정립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한계는 충분히 극복되리라 기대된다.

[주제어] 『한국고대사연구』, 『력사과학』, 동북공정, 『조선단대사』, 단군릉, 목간, 상고사논쟁

### — | 목 차 | —

- |                    |                        |
|--------------------|------------------------|
| I. 머리말             | Ⅲ. 남북한학계 고대사연구의 쟁점     |
| Ⅱ. 남북한학계의 고대사 연구동향 | Ⅳ. 맺음말 - 한국고대사연구의 과제 - |

## I. 머리말

1980년대 후반에 북한의 연구성과들이 남한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당시 북한에서는 고조선과 부여, 진국을 고대 노예소유자국가로, 삼국을 중세 봉건국가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신라 말까지 고대사회로 이해한 남한학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에 북한의 연구성과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고, 내용조차 매우 생경하였기 때문에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까지 남한학계에서 한동안 북한의 고대사 연구성과들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후 북한의 고대사 연구성과들이 남한학계의 연구에 적극 활용되어 한국고대사연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1991년에 『조선전사』 개정판을 출간하였는데, 일부 내용이 수정, 보완되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1979년에 간행한 『조선전사』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1990년에 손영종이 『고구려사』 1을 출간하였고, 이어 1997년과 1999년에 『고구려사』 2와 『고구려사』 3을 간행하였다. 손영종은 『고구려사』 1에서 고구려의 건국연대를 기원전 277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고구려 초기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였다. 손영종은 이후 2000년에 『고구려사의 제문제』를 다시 출간하였다. 북한에서는 1993년에 단군릉 발굴 결과를 발표한 이후, 기원전 30세기 초에 단군이 평양에서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맞추어 그들이 주장하는 고대사에 대한 재정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조희승이 1991년 『조선전사』 개정판을 발간한 이후의 백제사연구를 정리한 『백제사연구』를 2002년에 출간하였고, 이후 북한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조선단대사』(고조선사, 부여사, 진국사, 가야사, 고구려사1~5, 백제사1~2, 신라사1~3, 발해사1~3)를 간행하였다. 『조선단대사』에서 2011년까지 북한에서의 고대사연구를<sup>1)</sup> 망라하여 정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남한학계에서 손영종의 『고구려사』 1 출간 이후의 북한 고구려사 연구동향을 정리한 논고가 다수 발표되

1) 여기서 ‘고대사’는 북한에서 사용한 시대 구분 용어가 아니라 남한에서 사용한 시대 구분 용어로서 고조선부터 통일신라까지의 역사를 가리킨다. 이하에서도 ‘고대’ 또는 ‘고대사’라는 용어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있고, 단군릉 발굴 이후 고조선사, 부여사 연구동향을 고찰한 논고도 여러 편 발표되었다. 반면에 진국과 가야사, 신라사와 백제사, 발해사에 대한 연구동향을 검토한 논고를 좀처럼 찾기 어렵다. 그 이유는 『조선단대사』의 서술 내용이 1990년대까지의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과 아울러 북한의 연구성고가 남한학계의 연구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sup>2)</sup>

본고는 2000년 이후 남북한학계의 고대사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통일 이후 한국고대사연구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북한의 경우, 비록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공식적인 견해만이 외화되고, 논저의 발표기관도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한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구동향을 파악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근래에 1년에 500편 이상의 논저가 발표되고 있는 추세인바, 2000년 이후의 연구동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지난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별한 주제를 중심으로 남북한학계의 연구동향을 상호 대비시켜 정리하는 것도 그리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한의 경우, 먼저 2000년 이후의 연구동향을 시기별로 나누어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본 뒤에,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것이고, 북한의 경우는 1990년 이후 『력사과학』에 게재된 논고를 중심으로 1990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략적인 연구동향을 검토한 후에 주로 1979년에 출간된 『조선전사』와 2006년 이후에 출간된 『조선단대사』의 서술 내용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2000년 이후 북한학계 연구동향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통일 이후 한국고대사연구의 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본고가 향후 남북한 고대사학자들이 공조하여 연구할 수 있는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많은 질정을 바란다.

2) <표> 『한국고대사연구』에서 조사한 북한학계 논저 인용 현황(1988~2017)

| 연도        | 북한 논저 인용 수    | 고조선 · 고구려 · 발해 논문 게재 수 | 논문 1편당 평균 인용 논저 수 |
|-----------|---------------|------------------------|-------------------|
| 1988~1995 | 61회           | 14                     | 4.36              |
| 1996~2000 | 95회           | 20                     | 4.75              |
| 2001~2005 | 128+136회(25호) | 38(+3)                 | 3.37              |
| 2006~2010 | 189회          | 32                     | 5.91              |
| 2011~2015 | 138회          | 71                     | 1.94              |
| 2016~2017 | 18회           | 9                      | 2                 |

<표>는 1988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간행된 『한국고대사연구』에 게재된 단위 논문당 북한 논저 인용 숫자를 정리한 것이다. 2002년 3월에 간행된 『한국고대사연구』 25호에 ‘북한의 고대 문화유산’이란 주제 하에 3편의 논고가 특집으로 게재되었다. 3편의 논고에는 북한에서 간행한 논저가 136회에 걸쳐 인용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2001~2005년 사이의 논문 1편당 평균 인용 논저 수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같은 호에 동일 논문이 여러 번 인용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계산하였으며, 『한국고대사연구』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북한의 논저를 인용한 경우는 주로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 관련 논문이었고, 신라와 백제, 가야, 삼한사 관련 논문에서 북한의 논저를 인용한 경우를 거의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논문 1편당 평균 인용 논저 수를 계산할 때에 고조선사와 고구려사, 발해사 논문의 숫자를 기준으로 삼았다. <표>를 통해 2011년 이후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 논문이 『한국고대사연구』에 게재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논저를 인용한 경우는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음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 이후 남한학계의 연구지평이 크게 넓어진 점과 북한의 연구가 자의적인 측면이 강하여 남한학계에서 북한의 연구성고를 외면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 II. 남북한학계의 고대사 연구동향

### 1. 남한학계의 연구동향

해방 이후 한국고대사연구가 질적,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계기는 한국고대사연구회의 창립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고대사연구회는 1987년 2월에 대구에서 창립되었고, 1997년 2월에 학회 명칭을 한국고대사학회로 바꾸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한국고대사학회(한국고대사연구회)에서 1988년 6월에 『한국고대사연구』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여기에 2017년 6월에 발간된 86호까지 연구자 330여 명의 750여 편 논문이 게재되었던 바, 이 학회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명실상부하게 한국고대사연구를 주도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sup>3)</sup>

한국고대사연구회(한국고대사학회) 창립 이래, 지금까지 30년 동안에 걸쳐 진행된 남한학계의 한국고대사 연구동향을 대략적으로 살피기 위하여 198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고대사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국가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 <표 1>과 <표 2>이다.

<표 1> 『한국고대사연구』에 게재된 국가별 논문 수(1988년~2017년 6월)<sup>4)</sup>

| 시기 \ 국가   | 통사 | 선사 | 고조선 | 부여 | 옥저동예 | 삼한 | 한군현 | 고구려 |
|-----------|----|----|-----|----|------|----|-----|-----|
| 1988~1995 | 5  |    | 3   | 1  |      | 5  | 1   | 8   |
| 1996~2000 | 26 | 2  | 1   | 1  |      | 1  |     | 11  |
| 2001~2005 | 26 | 3  | 4   | 3  |      | 3  | 11  | 30  |
| 2006~2010 | 39 | 2  | 3   |    |      | 2  | 3   | 24  |
| 2011~2015 | 20 | 2  | 6   |    | 1    | 4  | 6   | 60  |
| 2016~2017 | 9  | 1  | 1   |    | 1    |    | 2   | 8   |

3) 1995년 12월에 사단법인 고구려연구회가 설립되었고, 이것을 2007년 11월에 고구려발해학회로 개칭하였다. 이 학회에서 1995년 12월에 『고구려연구』(후에 『고구려발해연구』로 개칭) 창간호를 간행한 이래, 2017년 7월까지 모두 58호를 발간하였다. 이후 1997년 12월에 단군학회가 설립되어 1999년 10월에 『고조선단군학』 창간호를 간행한 이래, 2017년 6월까지 36호를 발간하였다. 이어 2003년 3월에 신라사학회가 발족되어, 2017년 8월에 『신라사학보』 40호를 발간하였으며, 2008년 7월에 백제학회가 창립되어 2017년 8월에 『백제학보』 21호를 발간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한국고대사 연구는 각 국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설립한 학회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시기는 5년 단위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1988년에서 1990년까지 발간된 『한국고대사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1991년에서 1995년까지 발표된 논문 수에 포함시켰고, 2016년과 2017년에 발간된 『한국고대사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은 별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삼국 및 고대사 전반에 걸쳐 서술한 논문은 통사에, 제목에서 구석기와 신석기, 청동기, 초기 철기를 분명하게 밝힌 경우는 선사시대로 분류하였으며, 두 국가 이상에 걸쳐 서술한 경우는 각 국가마다 하나씩 중복하여 계산하였다. 중국과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연구한 경우 등은 기타로 처리하였고, 통일 이전과 이후의 신라를 망라한 경우는 내용과 주제를 살펴 신라와 통일신라의 논문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제목상에 남북국시대라고 표현하고 통일신라와 발해를 모두 다룬 경우는 통일신라와 발해 각국마다 하나씩 계산하였으며, 후삼국 또는 후고구려, 후백제, 나말여초라는 표현이 제목에 포함된 경우만을 후삼국의 논문으로 처리하였고, 신라 하대 또는 신라 말기라고 표현한 경우는 통일신라의 논문으로 파악하였다. 뒤에서 살펴볼 『한국사연구회보』에 소개된 논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였는데, 다만 여기서는 원삼국이란 표현이 보이는 경우는 별도로 원삼국시대로 분류하였다.

| 시기 \ 국가             | 통사   | 선사   | 고조선 | 부여   | 옥저동예 | 삼한  | 한군현 | 고구려               |
|---------------------|------|------|-----|------|------|-----|-----|-------------------|
| 합계(논문 수)            | 125  | 10   | 18  | 5    | 2    | 15  | 23  | 141               |
| 비율(%)               | 15.9 | 1.3  | 2.3 | 0.6  | 0.3  | 1.9 | 2.9 | 17.9              |
| 시기 \ 국가             | 백제   | 신라   | 가야  | 통일신라 | 발해   | 후삼국 | 기타  | 합계                |
| 1988~1995           | 5    | 26   | 4   | 9    | 3    | 3   | 3   | 76                |
| 1996~2000           | 12   | 20   | 11  | 8    | 8    | 1   | 1   | 103               |
| 2001~2005           | 15   | 22   | 7   | 32   | 4    | 5   | 9   | 174               |
| 2006~2010           | 31   | 42   | 7   | 27   | 5    | 2   | 7   | 194               |
| 2011~2015           | 24   | 21   | 6   | 16   | 5    | 7   | 6   | 184               |
| 2016~2017           | 10   | 7    | 4   | 8    |      |     | 5   | 56                |
| 합계(논문 수)            | 97   | 138  | 39  | 100  | 25   | 18  | 31  | 787 <sup>5)</sup> |
| 비율(%) <sup>6)</sup> | 12.3 | 17.5 | 5.0 | 12.7 | 3.2  | 2.3 | 3.9 | 100               |

〈표 2〉 『한국고대사연구』에 게재된 주제별 논문 수(1988년~2017년 6월)<sup>7)</sup>

| 시기 \ 주제   | 연구사<br>정체성 | 정치   | 군사전쟁<br>교통로 | 사회  | 경제  | 문화  | 종교사상<br>인식 | 생활  |
|-----------|------------|------|-------------|-----|-----|-----|------------|-----|
| 1988~1995 |            | 25   | 4           | 10  | 4   | 7   | 10         |     |
| 1996~2000 |            | 31   | 6           | 6   | 4   | 10  | 26         | 4   |
| 2001~2005 | 20         | 36   | 1           | 11  | 17  | 17  | 24         |     |
| 2006~2010 | 21         | 44   | 2           | 18  | 2   | 17  | 30         | 1   |
| 2011~2015 | 19         | 44   | 13          | 12  | 7   | 17  | 21         | 7   |
| 2016~2017 | 8          | 17   | 1           | 7   |     | 6   | 8          |     |
| 합계(논문 수)  | 68         | 197  | 27          | 64  | 34  | 74  | 119        | 12  |
| 비율(%)     | 8.7        | 25.2 | 3.4         | 8.2 | 4.3 | 9.5 | 15.2       | 1.5 |

5) 논문의 내용이 두 국가 또는 두 주제 이상인 경우, 국가 또는 주제를 복수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국가별 또는 주제별로 집계한 총 논문 수는 『한국고대사연구』에 게재된 실제 논문 수보다 많다고 볼 수 있다.

6) 비율은 소수점 2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7) 도성 또는 왕궁 관련 논문은 정치에, 역사계승의식 또는 역사인식을 다룬 논문은 종교·사상·인식에 포함시켰고, 특정 인물을 집중적으로 다룬 경우만을 인물에, 각 인물의 사상이나 역사인식 등을 다룬 논문은 주로 종교·사상·인식에 포함시켜 계산하였다. 묘제 또는 토기, 성곽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 고고학 관련 논문은 주로 문화에 포함시켜 계산하였는데, 다만 주거지 관련 고고학 논문은 그 성격에 따라 생활에 포함시켜 계산하였다. 위치 고증이나 영역의 변천을 다룬 논문은 지리·영역, 금석문과 목간, 문헌자료의 사료적 성격을 살핀 논문은 사료, 특정하게 주제를 나누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하여 계산하였으며, 주제가 두 개 이상 중복된 경우는 각 주제마다 하나씩 계산하였다. 역사교육에 관한 논문은 극히 소수여서 여기서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고, 추후에 살필 예정인 『한국사연구회보』에 소개된 논문의 경우도 대체로 이와 같은 원칙을 따랐음을 밝혀둔다.

| 주제<br>시기  | 인물  | 대외관계 | 사료   | 과학  | 지리영역 | 재외거류민 | 기타  | 합계    |
|-----------|-----|------|------|-----|------|-------|-----|-------|
| 1988~1995 |     | 3    | 7    |     | 3    |       | 1   | 74    |
| 1996~2000 | 1   | 3    | 9    |     | 1    |       | 1   | 102   |
| 2001~2005 | 6   | 19   | 10   | 1   | 3    | 7     | 1   | 173   |
| 2006~2010 | 2   | 8    | 33   | 2   | 9    | 2     | 2   | 193   |
| 2011~2015 | 2   | 7    | 23   | 2   | 7    | 3     | 1   | 185   |
| 2016~2017 |     | 3    | 3    | 1   |      | 2     |     | 56    |
| 합계(논문 수)  | 11  | 43   | 85   | 6   | 23   | 14    | 6   | 783   |
| 비율(%)     | 1.4 | 5.5  | 10.9 | 0.8 | 2.9  | 1.8   | 0.8 | 100.1 |

1988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한국고대사연구』에 게재된 국가별 논문을 살펴보면, 고구려와 신라에 관한 논문이 각기 17.9%와 17.5%로서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 통일신라와 백제 관련 논문 비율이 각기 12.7%, 12.3%로서 크게 차이가 없음을 살필 수 있다. 나머지 국가를 다룬 논문의 비율은 대략 5% 이하였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야에 관한 논문이 많은 점이 특징적이다. 시기에 따라 삼국과 통일신라에 관한 논문의 수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대체로 2000년 이전에 통일 이전 신라에 관한 논문이 『한국고대사연구』에 많이 게재되었고, 상대적으로 고구려와 백제에 관한 논문은 그것의 2분의 1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 이전 한국고대사 가운데 신라사 관련 연구가 중심이었음을 시사해주는 측면으로 주목된다. 이와 같은 추정은 1988년과 1993년, 1998년에 발표된 전체 한국고대사 관련 논문 발표 현황을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다. 다음 <표 3>은 『한국사연구회보』에서 1988년과 1993년, 1998년에 발표된 한국고대사에 관한 논문을 국가별로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3> 1988년과 1993년, 1998년에 발표된 국가별 논문 수(한국고대사)

| 국가<br>시기 | 통사 | 선사 | 원삼국 | 고조선  | 부여 | 옥저동예 | 삼한 | 한군현 | 고구려 |
|----------|----|----|-----|------|----|------|----|-----|-----|
| 1988     | 11 | 1  | 0   | 9    | 0  | 0    | 2  | 1   | 16  |
| 1993     | 20 | 1  | 1   | 8    | 3  | 1    | 4  | 2   | 13  |
| 1998     | 25 | 0  | 0   | 5    | 0  | 0    | 3  | 1   | 17  |
| 합계       | 56 | 2  | 1   | 22   | 3  | 1    | 9  | 4   | 46  |
| 국가<br>시기 | 백제 | 신라 | 가야  | 통일신라 | 발해 | 후삼국  | 기타 |     | 합계  |
| 1988     | 13 | 27 | 6   | 31   | 5  | 6    | 4  |     | 132 |
| 1993     | 23 | 34 | 19  | 51   | 10 | 6    | 6  |     | 202 |
| 1998     | 25 | 32 | 6   | 45   | 15 | 2    | 4  |     | 180 |
| 합계       | 61 | 93 | 31  | 127  | 30 | 14   | 14 |     | 514 |

〈표 3〉에서 1988년과 1993년, 1998년에 발표된 삼국에 관한 논문 가운데 신라에 관한 것이 93편이고, 고구려와 백제에 관한 것이 각기 46편, 61편으로서, 고구려와 백제 관련 논문이 신라에 관한 논문 수에 비해 매우 적었음을 살필 수 있는데, 『한국고대사연구』에 실린 국가별 논문 수의 경향이 1990년대 한국고대사연구 경향을 대체로 대변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측면으로서 주목된다. 2000년 이전에 한국고대사 가운데 신라사에 관한 논문이 많이 발표된 배경으로서 한국고대사의 기본 사료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신라 관련 기록이 상대적으로 많이 전하는 점, 해방 이후 다수의 신라 금석문이 발견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1988년과 1989년에 잇따라 발견된 울진봉평신라비와 영일냉수리신라비는 신라사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만큼 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는데, 두 비문을 둘러싼 신라사연구가 활성화된 측면을 1990년대 신라 관련 논문이 학계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표된 주요 요인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1988년과 1993년, 1998년에 통일신라에 관한 논문도 통일 이전 신라에 관한 논문 못지않게 많이 발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로 원효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사상사와 최치원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8)</sup>

주제와 관련하여, 정치사 관련 논문이 25.2%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건과 정치제도를 검토한 연구가 한국고대사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종교·사상·인식 관련 논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불교에 관한 논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밖에 역사인식을 다룬 논문도 적지 않게 발표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사료에 관한 논문이 약 10.9%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고대사연구』에 다수 게재되었는데, 1988년 이래 울진봉평신라비와 영일냉수리신라비, 포항중성리신라비, 함안 성산산성 목간, 집안고구려비가 새로 발견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상에서 1988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한국고대사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통하여 한국고대사연구의 개략적인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단군학회, 고구려발해학회, 신라학회, 백제학회, 한국고대학회, 한국고대사탐구학회에서<sup>9)</sup> 매년 주기적으로 3~4회에 걸쳐 학회지를 간행하고 있는 바, 『한국고대사연구』에 게재된 논문만으로 2000년 이후 한국고대사 연구동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한국고대사 연구동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한국사연구회보』에서 한국고대사 관련 논문을 조사하여 국가별,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 〈표 4〉와 〈표 5〉이다.

8) 한편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발간된 『한국고대사연구』에 고구려에 관한 논문의 게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였음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2년 7월에 발견된 집안고구려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성과들을 『한국고대사연구』 70호(2013년 6월)에 게재한 이래, 그것과 고구려유민 묘지명의 내용에 대해 연구한 다수의 논고가 『한국고대사연구』에 게재된 점,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 이후 증가한 신진 고구려사 전공자의 연구성과가 본격적으로 『한국고대사연구』에 발표되기 시작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표 6〉에서 2015년 이래 고구려 관련 논문이 학계에 적지 않게 발표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신진 고구려사 연구자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9) 한국고대학회는 1990년 3월에 창립되어 2017년 6월에 『선사와 고대』 52호를 발간하였고, 한국고대사탐구학회는 2009년 3월에 결성되어 2017년 8월에 『한국고대사탐구』 26호를 발간하였다.

〈표 4〉 『한국사연구회보』에서 조사한 국가별 한국고대사 논문 발표 현황(2000~2017)<sup>10)</sup>

| 국가<br>시기          | 통사    | 선사    | 원삼국 | 고조선   | 부여  | 옥저동예 | 삼한  | 한군현 | 고구려   |
|-------------------|-------|-------|-----|-------|-----|------|-----|-----|-------|
| 2000~2005         | 281   | 16    | 9   | 83    | 14  | 0    | 43  | 27  | 386   |
| 2006~2010         | 220   | 11    | 19  | 43    | 13  | 4    | 39  | 15  | 291   |
| 2011~2015         | 202   | 49    | 20  | 81    | 7   | 2    | 46  | 21  | 370   |
| 2016~2017         | 105   | 10    | 13  | 44    | 9   | 2    | 36  | 19  | 168   |
| 합계                | 808   | 86    | 61  | 251   | 43  | 8    | 164 | 82  | 1,215 |
| 비율 <sup>11)</sup> | 10.7  | 1.1   | 0.8 | 3.3   | 0.6 | 0.1  | 2.2 | 1.1 | 16.1  |
| 국가<br>시기          | 백제    | 신라    | 가야  | 통일신라  | 발해  | 후삼국  | 기타  |     | 합계    |
| 2000~2005         | 332   | 346   | 87  | 409   | 62  | 61   | 24  |     | 2,180 |
| 2006~2010         | 448   | 362   | 77  | 337   | 111 | 62   | 10  |     | 2,062 |
| 2011~2015         | 487   | 363   | 80  | 401   | 84  | 31   | 7   |     | 2,251 |
| 2016~2017         | 207   | 199   | 35  | 147   | 24  | 18   | 6   |     | 1,042 |
| 합계                | 1,474 | 1,270 | 279 | 1,294 | 281 | 172  | 47  |     | 7,535 |
| 비율                | 19.6  | 16.9  | 3.7 | 17.2  | 3.7 | 2.3  | 0.6 |     | 100   |

〈표 5〉 『한국사연구회보』에서 조사한 주제별 한국고대사 논문 발표 현황(2000~2017)<sup>12)</sup>

| 주제<br>시기  | 연구사<br>정체성 | 정치    | 군사전쟁<br>교통로 | 사회  | 경제  | 문화    | 종교사상<br>인식 | 생활  | 인물  |
|-----------|------------|-------|-------------|-----|-----|-------|------------|-----|-----|
| 2000~2005 | 178        | 492   | 112         | 57  | 78  | 503   | 290        | 36  | 83  |
| 2006~2010 | 138        | 366   | 106         | 51  | 61  | 573   | 249        | 67  | 40  |
| 2011~2015 | 123        | 464   | 115         | 64  | 50  | 636   | 265        | 57  | 29  |
| 2016~2017 | 75         | 204   | 64          | 44  | 23  | 248   | 113        | 16  | 10  |
| 합계(논문 수)  | 514        | 1,526 | 397         | 216 | 212 | 1,960 | 917        | 176 | 162 |
| 비율(%)     | 6.7        | 19.9  | 5.2         | 2.8 | 2.8 | 25.6  | 12.0       | 2.3 | 2.1 |

10) 2000년 1월에서 2017년 12월까지 간행된 논문 가운데 『한국사연구회보』에서 ‘고대’로 분류한 논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고대’로 분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에서 청동기, 초기 철기시대를 표기하였으면, 선사로 분류하였다. 한편 문화 또는 언어에 대해 다룬 논문은 대체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논문 가운데 국가 또는 주제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표 5〉와 〈표 6〉에서 집계한 통계는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11) 비율은 소수점 2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12) 국가별 논문 합계는 7,535개이고, 주제별 논문 합계는 7,657개로서 약 122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논문의 주제가 복수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편차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 주제<br>시기  | 대외관계 | 사료  | 과학  | 지리영역 | 재외거류민 | 역사교육 | 기타  |  | 합계    |
|-----------|------|-----|-----|------|-------|------|-----|--|-------|
| 2000~2005 | 162  | 134 | 28  | 59   | 24    | 18   | 13  |  | 2,267 |
| 2006~2010 | 152  | 124 | 36  | 36   | 32    | 21   | 7   |  | 2,059 |
| 2011~2015 | 191  | 168 | 32  | 46   | 43    | 19   | 5   |  | 2,307 |
| 2016~2017 | 77   | 70  | 7   | 30   | 29    | 14   | 0   |  | 1,024 |
| 합계(논문 수)  | 582  | 496 | 103 | 171  | 128   | 72   | 25  |  | 7,657 |
| 비율(%)     | 7.6  | 6.5 | 1.3 | 2.2  | 1.7   | 0.9  | 0.3 |  | 99.9  |

2001년에서 2017년 사이에 간행된 『한국고대사연구』에 발표된 고구려와 신라, 백제, 통일신라에 관한 논문은 각기 122편(전체 발표 논문 가운데 20.1%), 80편(13.2%), 92편(15.1%), 83편(13.7%)이었다. 그런데 <표 4>에서 2000년에서 2017년까지 발표된 한국고대사 논문 가운데 고구려와 백제, 신라, 통일신라에 관한 논문이 1,215편(전체 발표 논문 가운데 16.1%), 1,474편(19.6%), 1,270편(16.9%), 1,294편(17.2%)이었음을 알릴 수 있다. 『한국고대사연구』에는 고구려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되었음에 반하여, 2000년에서 2017년까지 백제에 관한 논문이 학계에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통일신라와 고구려, 신라에 관한 논문이 엇비슷하게 제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고조선과 가야, 발해를 다룬 논문의 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표 4>를 통하여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학계에 발표된 통일 이전 신라 관련 논문의 수에 커다란 변동이 없었음에 반하여, 다른 시기에 비하여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고구려 관련 논문이, 2006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백제 관련 논문이 특별히 많이 발표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2000년에서 2017년까지 주요 국가에 관한 논문 발표 현황을 정리한 것이 바로 <표 6>이다.

<표 6> 주요 국가 관련 논문 연도별 발표 현황(2000~2017년)

| 국가<br>시기 | 고조선 | 고구려 | 백제 | 신라 | 가야 | 통일신라 | 발해 |
|----------|-----|-----|----|----|----|------|----|
| 2000     | 20  | 39  | 43 | 46 | 27 | 60   | 4  |
| 2001     | 13  | 46  | 48 | 61 | 6  | 87   | 7  |
| 2002     | 18  | 51  | 56 | 68 | 16 | 67   | 9  |
| 2003     | 13  | 63  | 73 | 71 | 13 | 81   | 14 |
| 2004     | 8   | 94  | 60 | 56 | 13 | 55   | 20 |
| 2005     | 11  | 93  | 52 | 44 | 12 | 59   | 8  |
| 2006     | 7   | 71  | 69 | 55 | 13 | 75   | 29 |
| 2007     | 11  | 60  | 79 | 76 | 11 | 57   | 31 |
| 2008     | 5   | 63  | 68 | 63 | 18 | 59   | 18 |

| 시기 \ 국가  | 고조선 | 고구려   | 백제    | 신라    | 가야  | 통일신라  | 발해  |
|----------|-----|-------|-------|-------|-----|-------|-----|
| 2009     | 10  | 57    | 123   | 83    | 13  | 76    | 15  |
| 2010     | 10  | 40    | 109   | 85    | 22  | 70    | 18  |
| 2011     | 8   | 66    | 95    | 86    | 14  | 79    | 18  |
| 2012     | 20  | 64    | 70    | 49    | 8   | 64    | 11  |
| 2013     | 11  | 70    | 107   | 73    | 17  | 74    | 17  |
| 2014     | 18  | 74    | 120   | 75    | 25  | 72    | 14  |
| 2015     | 24  | 96    | 95    | 80    | 16  | 112   | 24  |
| 2016     | 17  | 81    | 117   | 112   | 12  | 57    | 7   |
| 2017     | 27  | 87    | 90    | 87    | 23  | 90    | 17  |
| 합계(논문 수) | 251 | 1,215 | 1,474 | 1,270 | 279 | 1,294 | 281 |

〈표 6〉을 보면, 2004년과 2005년에 고구려에 관한 논문의 발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백제에 관한 논문이 상당히 많이 발표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2016년에 이르러 통일 이전 신라에 관한 논문 발표가 크게 증가하였음이 눈에 띈다. 이와 더불어 2006년과 2007년에 발해 관련 논문의 발표 건수도 대폭 증가하였음도 주목을 끈다. 2016년에 통일 이전 신라에 관한 논문이 다수 발표된 것은 특히 이 해에 신라 관련 고고학과 사상사 논문의 발표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깊다고 보인다.

2004년과 2005년에 고구려에 관한 논문의 발표가 급격하게 증가된 것은 중국이 추진한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과 관련이 깊다. 중국은 2001년 6월에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동북공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2년 2월 18일에 중국 정부의 공식 승인을 거쳐 동북공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왜곡하자, 이에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4년 3월 1일에 고구려연구재단을 발족하고, 범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하하여 고구려사와 발해사연구 등을 적극 지원하였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기 시작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자, 고구려사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2004년과 2005년에 고구려에 관한 논문이 이전 시기에 비해 2배에 가까운 94편, 93편이 발표된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표 6〉에는 2004년과 2005년에 고구려연구재단에서 발간한 단행본에 실린 고구려 관련 논문 현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고구려연구재단에서 2004년에 2권, 2005년에 10권의 전문연구서를 간행하였는데, 여기에 게재된 고구려 관련 논문은 모두 43편이었다.<sup>13)</sup> 특히 2005년에 고구려연구재단에서 출간한 전문연구서에 게재된 고구려사 논문(38편)과 『한국사연구회보』에서 조사한 2005년 발표 고구려사 관련 논문을 모두 합하면, 무려 131편이나 된다. 이 해에 발표한 신라사와 백제사에 관한 논고가 각기 44편, 52편에 불과하였음을 감안한다면, 2005년에는 과히 狂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고구려사연구가 활기를 띠었다

13) 〈표〉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고구려연구재단에서 출간한 전문연구서와 게재 논문 수

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sup>14)</sup>

2004년과 2005년에 고구려사 관련 논문 발표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연구사·정체성 관련 논고가 2004년에 66편이 발표된 점이 주목을 끈다. 2004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사·정체성을 주제로 다룬 논문이 대체로 1년에 20~30편 정도가 발표되었음을 고려한다면, 2004년에 예년에 비해 연구사와 정체성을 주제로 하는 논문이 상당히 많이 발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고구려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국내와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동향 및 고구려의 역사적 정체성을 다룬 논고들이 2004년에 집중적으로 발표된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2006년도에 들어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이 완화되고, 같은 해에 고구려연구재단이 동북아역사재단에 흡수 통합되면서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2006년 이후에 학계에 발표된 고구려사 관련 논문이 백제, 신라에 관한 논문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경향을 보인 것은 이와 같은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발해 관련 논문 발표가 2006년과 2007년에 대폭 증가한 점이 주목되는데, 이는 동북공정의 여파로 발해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2008년에 백제사 관련 논문 68편이 발표되었는데, 그 다음 해인 2009년에는 그 두 배에 가까운 123편의 백제사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2012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최소 90편, 최대 120편의 백제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음이 확인된다. 백제사 관련 논문의 발표가 크게 증가한 이유와 관련하여 다음 <표 7>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연도 \ 내역 | 전문연구서             | 게재 논문 수                             |
|---------|-------------------|-------------------------------------|
| 2004년   | 중국의 발해사 연구동향      | 6편                                  |
|         |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동향     | 5편                                  |
| 2005년   | 고조선·고구려·발해 발표 논문집 | 26편(북한학자 발표 논문 17편, 남한 학자 발표 논문 9편) |
|         |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관계     | 5편                                  |
|         | 고구려의 국제관계         | 5편                                  |
|         | 고구려 문화의 비교 연구     | 3편                                  |
|         | 고구려의 사상과 문화       | 5편                                  |
|         | 고구려 벽화의 이미지 복원    | 4편(고구려 3편)                          |
|         | 고구려의 국가 형성        | 5편                                  |
|         | 중국의 한국고대사 연구 분석   | 7편(고구려 4편)                          |
|         | 고분벽화로 본 고분문화      | 5편(총론 제외)                           |
|         | 중국의 한국 고대문화 연구    | 5편(고구려 3편)                          |

다만 『고조선·고구려·발해 발표 논문집』에 실린 남북한 학자들의 논문은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 14) 참고로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성격의 국내의 학술회의는 2004년 한해 동안 모두 54차례 열렸으며, 이들 학술회의를 통해 발표된 논문은 모두 394편이었다고 한다(전호태, 「밖으로부터 시작된 위기와 기회, 2004년의 한국고대사연구」, 『역사학보』 187, 2005, 12쪽). 2004년에 개최된 각종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고구려에 관한 논문의 상당수가 2004년 및 2005년에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표 7〉 2000~2017년 삼국 및 문화와 종교·사상·인식 분야에 관한 논문 발표 현황

| 국가 \ 시기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고구려     | 39   | 46   | 51   | 63   | 94   | 93   | 71   | 60   | 63   |
| 백제      | 43   | 48   | 56   | 73   | 60   | 52   | 69   | 79   | 68   |
| 신라      | 46   | 61   | 68   | 71   | 56   | 44   | 55   | 76   | 63   |
| 문화      | 28   | 89   | 108  | 114  | 86   | 78   | 104  | 116  | 97   |
| 종교·사상   | 51   | 61   | 55   | 38   | 40   | 45   | 55   | 36   | 43   |
| 국가 \ 시기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고구려     | 57   | 40   | 66   | 64   | 70   | 74   | 96   | 81   | 87   |
| 백제      | 123  | 109  | 95   | 70   | 107  | 120  | 95   | 117  | 90   |
| 신라      | 83   | 85   | 86   | 49   | 73   | 75   | 80   | 112  | 87   |
| 문화      | 131  | 125  | 127  | 108  | 100  | 141  | 160  | 121  | 127  |
| 종교·사상   | 57   | 58   | 43   | 47   | 49   | 65   | 61   | 57   | 56   |

〈표 7〉을 보면, 종교·사상·인식 분야의 논문 발표 수는 2000년에서 2017년까지 변동의 폭이 그리 크지 않았음을 살필 수 있다. 반면에 문화 분야의 발표 논문 수는 2007년 이후부터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특히 백제사에 관한 논문의 발표 숫자가 많은 연도에 문화 분야의 논문 발표 수도 많았다는 사실이 주목된다고 하겠다. 예컨대 2009년에 백제사 관련 논문 123편이 발표되었는데, 이 해에 문화 분야의 발표 논문 수가 131편에 달하였고, 또한 2014년에 백제사 관련 논문 120편이 발표되었는데, 같은 해에 문화 분야의 논문 141편이 발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 분야에는 석조미술 및 공예와 관련된 논문뿐만 아니라 고고학 발굴조사 관련 성과를 정리한 논고, 묘제와 토기, 성곽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논고 등이 망라되었다. 결과적으로 백제에 관한 논문과 문화 분야 관련 논고의 발표 건수가 동시에 증가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 옛 백제지역인 충남과 경기도, 서울지역에 대한 고고학 발굴조사가 활발해졌고, 2009년 이후에 고고학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한 백제 고고학 관련 논고의 발표가 크게 증가한 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충남 부여와 전남 나주지역에서 백제 목간이 대거 발견되면서 목간을 둘러싼 연구가 활성화된 점, 2010년 1월에 공주와 부여, 익산의 백제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이래, 2015년 7월 백제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까지 백제유적의 복원, 정비와 연동하여 백제사연구가 크게 활성화된 점 등도 백제사 관련 논문 발표 건수의 증가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198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고대사연구』에 게재된 종교·사상·인식 분야 관련 논문이 15.2%, 문화 부분 관련 논문이 9.5%를 차지하였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한국고대사 논문 가운데 종교·사상·인식 분야에 관한 논문이 12.0%로서 『한국고대사연구』에 게재된 그것과 관련된 논문의 비율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던 반면, 문화 분야에 관한 논문은 25.6%로서 『한국고대사연구』에 게재된 문화 분야 논문에

비하여 2.5배 정도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이것은 『한국고대사연구』에 고고학 관련 논문의 게재 비율이 낮은 사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에 한국고대사 관련 논문 가운데 고고학 관련 논문의 비율이 증가한 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논문 가운데 정치 분야 관련 논문의 비율이 19.9%였는데, 이것은 2000년 이후에도 역사적 사건 및 정치 제도에 관한 연구가 불교·유학사상사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한국고대사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사실과 관계가 깊다고 말할 수 있다.<sup>15)</sup>

한편 2000년 이후에 신라와 백제목간이 다량으로 발견된 것을 계기로 하여 2007년 1월에 한국목간학회가 발족되었고, 이 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목간과 금석문, 각종 문자자료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목간과 문자자료를 기초로 한 연구성과가 2007년 이후에 학계에 본격적으로 발표되었다. 2006년 이후에 사료 관련 논고의 발표가 증가한 것은 이와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이밖에 포항중성리신라비와 집안고구려비가 새로 발견된 것도 사료 관련 논문의 발표 수가 증가한 데에 일정하게 기여하였음은 물론이다. 2005년 이전에도 사료와 관련된 논고가 적지 않게 발표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 기본 사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고구려사와 백제사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군사·전쟁·교통로 및 대외관계 관련 논문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sup>16)</sup> 고구려사와 백제사 관련 논문 가운데 이들 관련 주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졌음을 시사해주는 측면으로 유의된다고 하겠다.

## 2. 북한학계의 연구동향

북한에서 고대사 연구성과를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기관은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이다. 현재 력사연구소 내에는 고대사연구실, 고구려사연구실, 발해사연구실, 중세사연구실 등이 존재하는데, 고대사연구실에서 고조선과 부여, 진국, 구려의 역사에 관하여, 중세사연구실에서 신라와 백제, 가야의 역사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고조선과 구려, 전부여, 진국을 고대 노예소유자사회, 고구려와 후부여, 백제, 신라를 중세 봉건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 고고학·역사학 관련 학술지로서 『력사제문제』, 『력사과학』,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과학논문집』, 『문화유물』, 『문화유산』, 『고고민속』, 『고고민속논문집』, 『조선고고연구』 등을 발간하였는데, 이 가운데 현재까지 계속 간행되는 학술지는 『력사과학』과 『조선고고연구』뿐이다.<sup>17)</sup> 후자에 주로 고고학 관련 논문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이후 북한의 고대사 연구동향을

15) 종교·사상·인식에 관한 논문이 전체 발표 논문 가운데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한국고대사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불교와 유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연구성과가 다수 발표된 것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16) 2000~2005년에 군사·전쟁·교통로, 대외관계 논문이 112편, 162편 발표되었음에 반해, 2006~2010년에는 각기 106편, 152편 발표되었다. 그러나 2000~2005년의 경우는 6년간에 발표된 논문 수를 집계한 것이고, 2006~2010년의 경우는 5년간에 발표된 논문 수를 집계한 것임을 감안할 때, 2000년 이후에 위의 주제와 관련된 논문의 발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정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17) 북한에서 간행된 고고학·역사학 학술지의 현황에 대해서는 이영화, 「북한의 고대사 연구 경향-학술지 계량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 2009, 181~184쪽이 참조된다.

파악하는 데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는다.<sup>18)</sup> 여기서는 『력사과학』에 실린 고대사 논문을 분석하여, 2000년 이후 북한의 고대사 연구동향을 파악할 예정인데, 1990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발간된 『력사과학』에 실린 고대사 논문들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 <표 8>, <표 9>이다.

<표 8> 『력사과학』에 게재된 국가별 논문 현황(1990년~2017년 6월)

| 국가<br>시기  | 통사   | 선사    | 고조선  | 부여    | 락랑   | 진국  | 한사군 | 고구려  |
|-----------|------|-------|------|-------|------|-----|-----|------|
| 1990~1995 | 7    |       | 8    | 1     |      | 1   |     | 13   |
| 1996~2000 | 9    | 1     | 12   | 3     | 1    | 1   | 3   | 10   |
| 2001~2005 | 7    | 2     | 4    |       | 1    |     | 1   | 23   |
| 2006~2010 | 2    |       | 4    |       | 1    |     | 2   | 18   |
| 2011~2017 | 10   |       | 3    |       |      | 3   |     | 22   |
| 합계(논문 수)  | 35   | 3     | 31   | 4     | 3    | 5   | 6   | 86   |
| 비율(%)     | 14.5 | 1.2   | 12.9 | 1.7   | 1.2  | 2.1 | 2.5 | 35.7 |
| 국가<br>시기  | 백제   | 전기 신라 | 가야   | 후기 신라 | 발해   | 후삼국 | 기타  | 합계   |
| 1990~1995 | 4    | 1     | 1    |       | 13   |     | 3   | 52   |
| 1996~2000 | 1    | 1     |      |       | 3    |     |     | 45   |
| 2001~2005 | 1    | 3     |      | 2     | 8    |     | 2   | 54   |
| 2006~2010 | 1    | 4     |      |       | 2    | 1   |     | 36   |
| 2011~2017 | 3    | 1     | 2    | 2     | 8    |     | 1   | 54   |
| 합계(논문 수)  | 10   | 10    | 3    | 4     | 34   | 1   | 6   | 241  |
| 비율(%)     | 4.1  | 4.1   | 1.2  | 1.7   | 14.1 | 0.4 | 2.5 | 99.9 |

<표 9> 『력사과학』에 게재된 주제별 논문 현황(1990년~2017년 6월)

| 국가<br>시기  | 연구사<br>정체성 | 정치   | 군사전쟁<br>교통로 | 사회  | 경제  | 문화   | 종교사상<br>인식 |
|-----------|------------|------|-------------|-----|-----|------|------------|
| 1990~1995 | 5          | 14   | 4           | 2   | 1   | 5    | 4          |
| 1996~2000 | 5          | 11   |             |     | 1   | 1    | 4          |
| 2001~2005 | 5          | 9    | 4           |     |     | 9    | 2          |
| 2006~2010 | 2          | 7    | 1           | 5   | 1   | 5    | 3          |
| 2011~2017 | 4          | 14   | 4           | 3   | 2   | 8    | 7          |
| 합계        | 21         | 55   | 13          | 10  | 5   | 28   | 20         |
| 비율        | 8.8        | 23.4 | 5.4         | 4.2 | 2.1 | 11.7 | 8.4        |

18) 다만 양시은, 「최근 북한 고고학계의 고구려 연구동향-『조선고고연구』를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56, 2016에서 『조선고고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최근 북한학계의 연구동향을 살핀 바 있어 주목된다.

| 시기 \ 국가   | 생활  | 대외관계 | 사료  | 과학  | 지리영역 | 기타  | 합계    |
|-----------|-----|------|-----|-----|------|-----|-------|
| 1990~1995 |     | 2    | 3   | 1   | 10   | 1   | 52    |
| 1996~2000 | 1   | 6    | 1   |     | 11   |     | 41    |
| 2001~2005 | 4   | 7    | 5   |     | 7    |     | 52    |
| 2006~2010 | 5   | 4    | 1   |     | 3    |     | 37    |
| 2011~217  | 2   | 7    | 3   |     | 3    |     | 57    |
| 합계(논문 수)  | 12  | 26   | 13  | 1   | 34   | 1   | 239   |
| 비율(%)     | 5.0 | 10.9 | 5.4 | 0.4 | 14.2 | 0.4 | 100.3 |

북한에서는 일찍부터 고조선 - 고구려 - 발해로 이어지는 역사계승의식을 강조하였고, 이들 국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1990년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표 8>을 보면, 『력사과학』에 게재된 고대사 논문 가운데 고구려사에 관한 논문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35.7%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이후에도 북한에서 고구려사를 가장 중시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음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고구려사 다음으로 발해사에 관한 논문이 『력사과학』에 많이 게재되었고, 그 다음으로 고조선사에 관한 논문이 많이 게재되었다. 2000년 이후에 남한에서 고조선사와 발해사 논문이 전체 한국고대사 논문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3.3%와 3.7%였음에 반해 『력사과학』에 실린 고대사 논문 가운데 고조선사와 발해사에 관한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12.9%, 14.1%로 크게 차이가 난다. 통계상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격차는 북한에서 정책적으로 고조선과 발해에 관한 연구를 강조한 것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19)</sup>

『력사과학』에 게재된 고대사 논문 가운데 신라사(전기신라사)와 백제사 관련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4.1%, 4.1%였다. 반면에 2000년에서 2017년까지 남한에서 발표된 고대사 논문 가운데 통일 이전 신라사와 백제사에 관한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6.9%, 19.6%였다. 신라와 백제의 수도가 남한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두 나라에 관한 고고학 논문이 많이 발표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에서 신라사와 백제사에 관한 연구를 경시하였음을 쉬이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신라사와 백제사를 바라보는 태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990년 이후에 신라사와 백제사 논문이 각각 10편 발표되었는데, 백제사 관련 논문 제목에서 부정적인 표현을 찾을 수 없는 반면, 「7세기 중엽 신라 통치배들의 외세의존 책동」(『력사과학』 2000-3), 「신라 통치배

19) 2009년 이래 북한의 사회과학원에서 부정기적으로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을 간행하였다. 필자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간행한 조선사회과학학술집 가운데 고조선사부터 통일신라(후기신라)사와 발해사까지 다룬 단행본과 논문집을 조사한 결과, 단행본 14권을 간행하고, 논문집 4종류(『조선고대사연구』, 『역사학연구논문집』, 『고고학연구논문집』, 『민족고전연구논문집』)에 6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고구려사를 다룬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밖에 고조선사와 구려사, 발해사, 한일관계사(조일관계사)에 관한 것을 일부 찾을 수 있었으며, 백제와 신라, 가야의 역사를 다룬 논문은 매우 드물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다만 『고고학연구논문집』에 백제와 가야의 역사에 관한 연구논문이 일부 게재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삼국 전반에 관한 고고학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사회과학원 조선사회과학학술집에 게재된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분석, 검토하여 별도의 논고로 발표할 예정이다.

들의 외세의존 책동의 후과와 교훈」(『력사과학』 2004-3), 「동족의 나라들을 해치기 위한 신라 통치배들의 사대외교 책동」(『력사과학』 2010-4) 등과 같이 신라사 관련 논문 제목에서 신라 지배층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을 여럿 발견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신라 지배층이 외세인 당을 끌어들이고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사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에서는 삼국통일, 또는 통일신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sup>20)</sup> 이와 같은 북한의 신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력사과학』에 게재된 논문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학계에서 신라사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였음은 남한과 북한에서 편찬된 총서류의 국가별 서술 분량 비교를 통해서도 다시금 상기할 수 있다. <표 10>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신편한국사』 고대편(4~11권)과<sup>21)</sup> 북한의 『조선전사』(1979년 출간) 및 『조선단대사』 고대편의 국가별 서술 분량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10> 『신편한국사』와 『조선전사』, 『조선단대사』 고대편 국가별 서술 분량(단위 : 쪽)<sup>22)</sup>

| 국가<br>책명             | 고조선          | 부여           | 옥저<br>동예    | 삼한<br>(진국)   | 고구려             | 백제            | 신라            | 가야           | 통일(후기)<br>신라  | 발해            |
|----------------------|--------------|--------------|-------------|--------------|-----------------|---------------|---------------|--------------|---------------|---------------|
| 신편<br>한국사<br>(2,677) | 102<br>(3.8) | 83<br>(3.1)  | 24<br>(0.9) | 41<br>(1.5)  | 370<br>(13.8)   | 392<br>(14.6) | 390<br>(14.6) | 172<br>(6.4) | 857<br>(32.0) | 246<br>(9.2)  |
| 조선<br>전사<br>(1,381)  | 121<br>(8.8) | 51<br>(3.7)  |             | 74<br>(5.4)  | 417<br>(30.2)   | 143<br>(10.4) | 155<br>(11.2) | 20<br>(1.4)  | 226<br>(16.4) | 174<br>(12.6) |
| 조선<br>단대사<br>(3,435) | 206<br>(6.0) | 178<br>(5.2) |             | 172<br>(5.0) | 1,137<br>(33.1) | 425<br>(12.4) | 353<br>(10.3) | 243<br>(7.1) | 195<br>(5.7)  | 526<br>(15.3) |

『신편한국사』 고대편의 전체 서술 분량 가운데 고구려사와 백제사, 신라사의 서술 분량 비율은 각기 13.8%, 14.6%, 14.6%로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통일신라사의 서술 비율은 32%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2000년 이후에 발표된 고대사 논문 가운데 통일신라사 논문이 17.2%로서 고구려사와 백제사, 통일 이전 신라사 논문의 발표 비율과 그리 커다란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신라사의 서술 분량이 32%를 차지한 것은 남한에서 통일신라의 역사를 강조한 사실과 아울러 다른 국가에 비하여 통일신라에 관한 기본 사료와 유적·유물이 풍부하여 연구가 심화된 사실을 반영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20) 북한에서는 ‘삼국통일’ 대신 ‘신라에 의한 국토 남부의 통합’, ‘통일신라’ 대신 ‘후기신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21) 『신편한국사』 6(삼국의 정치와 사회Ⅱ-백제)은 1995년에, 『신편한국사』 5(삼국의 정치와 사회Ⅰ-고구려)와 『신편한국사』 10(발해), 『신편한국사』 11(신라의 쇠퇴와 후삼국)은 1996년에, 『신편한국사』 4(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와 『신편한국사』 7(삼국의 정치와 사회Ⅲ-신라·가야)은 1997년에, 『신편한국사』 8(삼국의 문화)과 『신편한국사』 9(통일신라)는 1998년에 출간하였다.

22) 『신편한국사』에서는 삼국의 문화는 특별하게 한권에 몰아서 서술하였다. 각 국가의 서술 분량을 일일이 계산하여 각 국가의 서술 분량에 합산하였다. 다만 삼국 및 가야를 총괄하여 서술한 경우는 n분의 1로 계산하여 처리하였다.

『조선전사』 고대편의 전체 서술 분량 가운데 후기신라사의 서술 분량 비율은 16.4%로서 발해사의 서술 분량 비율보다 더 높았으나, 2006년 이후에 발간한 『조선단대사』 고대편 전체에서 후기신라사의 서술 분량은 발해사 서술 분량의 3분의 1 정도인 5.7%에 불과하였다. 심지어 이와 같은 분량 비율은 가야사와 고조선사 서술 분량 비율에 비해서도 더 낮은 것이었고, 부여사와 진국사의 서술 분량 비율과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다가 1990년에서 2017년까지 『력사과학』에 게재된 후기신라사 논문은 단 4편에 불과하였다. 『신편한국사』 고대편에서 통일신라사의 서술 분량이 전체 서술 분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였던 것에 반해, 『조선단대사』의 후기신라사 서술 분량이 『신편한국사』의 통일신라사 서술 분량의 약 5.6분의 1에 불과하였던 측면은 1970~1980년대에 비해 근래에 들어 남북한 사이 고대사를 바라보는 역사상에 대한 괴리가 더욱 더 심화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어 유의된다고 하겠다.

1990년 이후에 발간한 『력사과학』에 게재된 고조선사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2.9%였다. 반면에 『조선전사』와 『조선단대사』 고대편에서 고조선사 서술 분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8.8%, 6.0%였다. 고조선에 관한 기본 사료가 절대적으로 적고, 고조선 관련 유적·유물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총서류에서 서술 분량을 늘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고구려 다음으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45년에서 2006년 사이에 북한에서 발표된 고대사 논문의 국가별 현황을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다. 다음 <표 11>은 해방 이후부터 2006년까지 북한에서 발표된 고대사 논문을 국가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11> 북한 고대사 논문의 국가별 분류<sup>23)</sup>

| 시대 구분 | 분류     | 력사제 문제 | 력사 과학 | 김대 학보 | 력사과학 논문집 | 문화 유물 | 문화 유산 | 고고 민속 | 고고민속 논문집 | 조선고고 연구 | 합계  |
|-------|--------|--------|-------|-------|----------|-------|-------|-------|----------|---------|-----|
| 고대    | 고대     |        | 22    | 9     | 3        |       | 2     | 3     |          | 5       | 44  |
|       | 구려     |        | 2     |       |          |       |       |       |          |         | 2   |
|       | 진국     |        | 4     |       |          |       |       |       |          | 3       | 7   |
|       | 숙신     |        | 2     |       | 1        |       |       |       |          |         | 3   |
|       | 고조선    | 2      | 52    | 1     |          |       | 6     | 9     | 3        | 81      | 154 |
|       | 한사군 락랑 | 1      | 8     |       |          |       | 1     | 1     |          | 15      | 26  |
|       | 부여     |        | 4     |       |          |       |       |       |          | 2       | 6   |
| 중세    | 삼국     |        | 12    | 2     | 1        | 1     | 1     | 6     | 2        | 2       | 27  |
|       | 고구려    | 3      | 120   | 12    | 6        | 6     | 22    | 24    | 2        | 137     | 329 |
|       | 백제     |        | 15    |       | 1        | 1     |       | 1     |          | 6       | 23  |
|       | 신라     | 1      | 14    | 2     |          |       | 1     | 7     |          | 3       | 28  |
|       | 가야     |        | 1     |       |          |       |       |       |          | 6       | 7   |
|       | 발해     |        | 32    | 6     | 1        | 1     |       | 5     | 1        | 44      | 89  |

23) <표 11>은 이영화, 앞의 논문, 2009, 189쪽에 제시된 <표 6>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표 11〉을 통하여 2006년까지 간행된 『역사과학』뿐만 아니라 『조선고고연구』에도 고구려사와 고조선사에 관한 논문이 많이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와 고조선의 수도가 평양이었고, 북한에서 대동강 유역을 집중적으로 발굴 조사한 결과, 고구려와 고조선에 관한 유적과 유물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조선고고연구』에 두 나라에 관한 논문이 많이 실린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 반면에 『역사과학』에 고조선사 관련 논문이 많이 게재된 사실을 단순히 고고학 관련 유적·유물이 많이 발견된 것과 직접 연계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보인다. 『역사과학』에 고조선사 논문이 많이 게재된 것은 결국 북한에서 고구려와 더불어 고조선에 관한 연구를 정책적으로 적극 강조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표 8〉에서 주목할 사항은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발간된 『역사과학』에 고조선사 논문이 다수 게재되었고, 2001년 이후에는 고조선 논문의 게재 수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역사과학』에 게재된 고조선사 관련 논문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0년에 1편, 1991년에 1편에 불과하였지만, 1994년에 2편, 1995년에 4편, 1996년에 6편, 1999년에 2편, 2000년에 5편이었음을 살필 수 있다. 1994년에서 2000년 사이에 고조선사 논문이 『역사과학』에 집중적으로 게재된 경향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1993년 2월 18일 단군릉 발굴 이후 고조선에 관한 연구의 커다란 변화와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북한에서는 단군릉 발굴 이후에 기존의 요동중심설을 폐기하고 기원전 3세기 초에 단군이 평양에서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입론을 확립하기 위해 1993년 이후에 고조선과 단군에 관한 학술발표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데,<sup>24)</sup> 1994년 이후에 고조선에 관한 논문이 『역사과학』에 집중적으로 게재된 것은 바로 몇 차례에 걸친 학술발표회의 결과를 외화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25)</sup> 단군릉 발굴 이후에 북한에서 고대사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필 예정이다.

『역사과학』에 게재된 고대사 논문의 주제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치 분야 논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역사적 사건과 정치제도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어 주목된다. 남한에서 발표된 한국고대사 논문 가운데 종교·사상·인식 분야의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12%였다. 반면에 『역사과학』에 게재된 종교·사상·인식 분야 논문의 게재 비율은 8.4%에 불과하였다. 남한에서 사상사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상대적으로 북한에서는 사상사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별로 주목을 받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반면에 『역사과학』에 대외관계와 지리·영역 분야의 논문 게재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임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북한학계에서 대외항쟁과 더불어 강역의 확대 및 변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 사실과 관련이 깊다고 보인다.<sup>26)</sup>

『조선단대사』 등에서 계급투쟁 및 생산관계의 변화 등에 대한 서술에 비교적 많은 비중을 둔 것에 비하

24) 1993년 10월 12일과 13일에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학술토론회'가 열렸고, 1994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제2차 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1995년 4월 24일과 25일에 '탁량문화의 성격과 탁량군의 위치에 대한 학술발표회'가 열렸고, 1995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제3차 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다(이영화, 위의 논문, 193쪽).

25) 참고로 북한에서는 1993년 이후 고조선과 관련된 고고학 발굴조사 성과를 『조선고고연구』에 집중적으로 발표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조병중, 「북한의 '대동강문화론'과 고조선인식 검토」, 『선사와 고대』 43, 2015가 참조된다.

26) 『역사과학』에 게재된 대외관계와 지리·영역 분야의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기 10.9%, 14.2%였음에 반하여, 2000년 이후에 남한에서 발표된 논문 가운데 대외관계와 지리·영역 분야의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기 7.6%, 2.2%에 불과하였다.

면, 사회와 경제 분야의 논문이 『력사과학』에 게재된 비율이 4.2%, 2.1%로서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이채롭다. 북한학계에서 대외항쟁과 이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영역의 확대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여 연구를 진행한 사실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대외항쟁과 강역의 확대를 살핀 논문을 『력사과학』에 주로 게재한 경향과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실은 『조선단대사』 고구려사 서술에서 고구려의 대외관계와 대외항쟁에 대한 비중을 대폭 확대한 것을 통해서 다시금 상기할 수 있다.<sup>27)</sup>

### Ⅲ. 남북한학계 고대사연구의 쟁점

#### 1. 단군릉 발굴 이후 북한학계의 역사 재정리 작업

북한에서는 1980년대까지 고조선과 부여, 진국을 고대 노예소유자국가로, 고구려와 백제, 신라, 즉 삼국을 중세 봉건국가로 규정하였다. 당시 북한에서는 기원전 1000년기 초에 고조선이 요동지역에서 건국되었고, 수도인 왕검성은 요하 하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으며, 한나라는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정복하고 요동지역에 락랑군을 비롯하여 진반(진번), 립둔, 현도 등 4군을 설치하였다고 이해하였다.<sup>28)</sup> 또한 기원전 5세기에 건국된 부여는 494년에 봉건국가인 고구려에 의해 병합되었는데, 멸망할 때까지 부여의 경제는 기본 생산대중인 노예와 하호들에 대한 착취와 정복민인 읍루족에 대한 가혹한 수탈에 기초하였다고 파악하였다.<sup>29)</sup> 이밖에 북한에서는 마한과 진한, 변한으로 이루어진 고대 노예소유자국가인 진국이 기원전 4세기 이전에 성립되었고, 그 이후 어느 시기에 중심지를 월지국(충남 천안시 직산면)에서 금강 이남의 익산으로 옮겼다가 기원 1세기 중엽에 백제에 의해 망하였다고 보았다.<sup>30)</sup>

북한에서는 1991년에 『조선전사』 개정판을 출간하였는데, 여기에서 1979년 『조선전사』 출간 이후의 연구성과를 추가하였다. 1991년판 『조선전사』에 추가되거나 개정된 핵심 내용으로 첫 번째, 고대 노예소유자국가로서 고구려의 전신인 구려국을 추가한 사실, 두 번째, 부여의 역사를 고대국가 시기의 부여(고대부여)와 봉건국가 시기의 부여(봉건부여; 후부여)로 구분한 점, 세 번째, 고대국가들의 건국연대를 상향 조정한 점을 들 수 있다.<sup>31)</sup>

27) 손영중, 『조선단대사』(고구려사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의 231쪽 가운데 128쪽이, 손영중, 『조선단대사』(고구려사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의 247쪽 가운데 111쪽이, 손영중, 『조선단대사』(고구려사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의 252쪽 전체가 대외관계와 대외항쟁에 관한 내용이다. 『조선단대사』(고구려 1~5)의 1,137쪽 가운데 대외관계와 대외항쟁의 서술 분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3.2%(491쪽)에 해당하였다.

28) 이상의 내용은 조선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1~115쪽에서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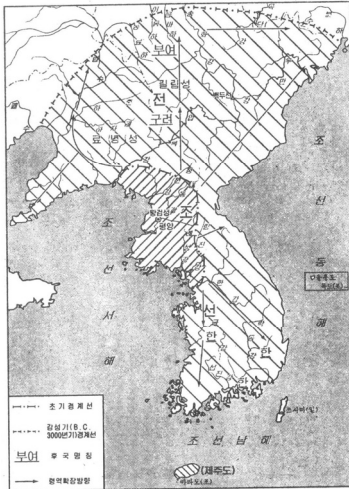
29) 조선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위의 책, 115~154쪽.

30) 조선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위의 책, 155~2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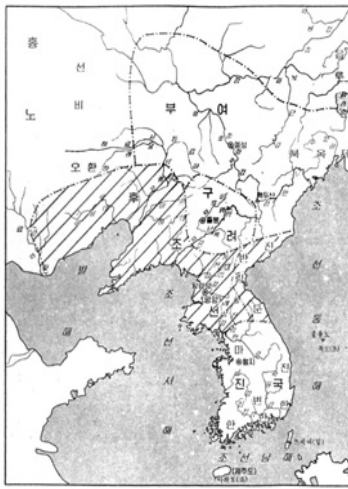
31) 이종수, 「북한의 역사인식과 부여사로의 적용」, 『사학지』 53, 2016, 172~173쪽; 이교덕, 『《조선전사》 해제』,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94-1, 통일연구원, 1994, 62쪽.

북한에서는 고조선은 기원전 10세기 이전에, 부여는 기원전 7세기 이전에, 진국은 기원전 6세기에, 구려국은 기원전 5세기 이전에 성립되었다고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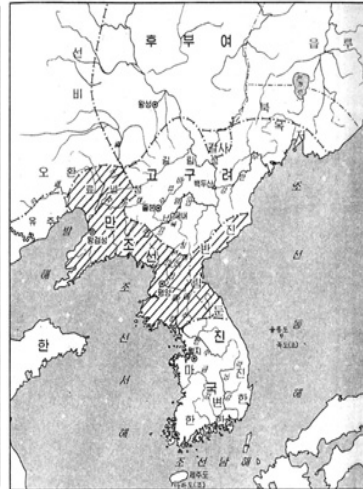
북한에서는 1993년 10월에 단군릉 발굴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부여, 진국 및 구려의 역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단군릉은 본래 평양시 강동군 대박산 기슭에 있는 석실봉토분이다. 북한은 단군릉을 발굴하고, 거기에서 나온 인골을 전자상자성 공명연대 측정방법(Electronic Spin Resonance Dating)으로 연대를 측정하니, B.P.5011±267이 나온 사실을 근거로 하여, 단군이 5000년 전에 평양지방의 강동 땅에서 태어나 원시적인 정치기구를 고대국가의 통치기구로 개편한 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첫 고대 국가 고조선(전조선)을 세운 고조선의 건국시조이며, 우리 민족의 원시조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북한에서는 이른바 대동강문화론을 강력하게 제창하였는데, 그것은 기원전 4천년 후반기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유역에서 문명사회로 변화, 발전되는 양상이 나타났던 바, 대동강유역은 세계 4대문명에 비견되는 인류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중심지의 하나였다는 내용이다.<sup>32)</sup>



〈그림 1〉 전조선 초기와 강성기 영역



〈그림 2〉 후조선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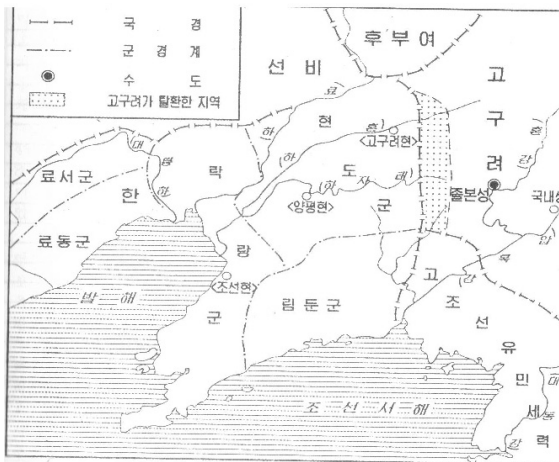
〈그림 3〉 만조선의 영역

단군릉 발굴 이후 북한에서는 기존의 요동중심설을 폐기하고, 고조선은 기원전 30세기 초에 단군에 의해 평양에서 건국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2010년에 전대준·최인철이 집필한 『조선단대사』(고조선사)는 이러한 입론에 기초하여 서술되었다. 『조선단대사』(고조선사)에 따르면, 고조선은 기원전 30세기 초부터 기원전 15세기 중엽까지 약 1,500년간의 전조선, 기원전 15세기 중엽부터 기원전 194년까지의 후조선,<sup>33)</sup> 기원전 194년에서 기원전 108년까지의 만조선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그리고 최전성기 전조선의 영역은 한반도 전체와 요동지구, 길장지구(길림·장춘지구), 두만강 하류유역-연해변강 남부지역을 포괄하였고, 기원전 15세기 중

32) 대동강문화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범중, 앞의 논문, 2015가 참조된다.

33)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2 고조선조에서 인용한 古記에서 단군이 나라를 다스린 지 1500년이 지나 周 武王이 箕子를 朝鮮에 封하사, 藏唐京으로 옮겼다고 하였다. 북한에서는 이 기록을 그대로 신뢰하여, 기원전 1500년 무렵에 전조선에서 후조선으로의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이해하였다.

엽에 부여와 구려, 진국 등이 고조선에서 독립하였기 때문에 전조선에 비해 후조선의 영역은 약간 축소되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후조선은 서쪽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난하유역까지 진출하였다가 기원전 3세기 초에 연나라 장수 진개의 침략을 받아 일시적으로 요하서쪽 요양하계선으로 후퇴하였으며, 연나라 쇠퇴기에 다시 패수(대릉하)계선 동쪽지역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밖에 고조선 말기의 사료에 나오는 왕검성은 부수도(제2왕검성)로서 개현(중국 요녕성 개주시) 일대에 위치하였다고 보았다.<sup>34)</sup> 한나라가 고조선을 정벌한 후에 한사군을 설치하였는데, 북한에서는 4군 가운데 진만군은 이름만 있었고 설치되지 않았다고 보며, 나머지 3군은 대체로 중국 요동지역에 위치하였다고 이해하였다.<sup>35)</sup>



〈그림 4〉 기원전 108~107년 락랑군과 립둔군, 현도군 위치도



〈그림 5〉 기원전 70년대 초 락랑군과 현도군, 립둔군, 료동군의 위치

- 34) 〈그림 1〉과 〈그림 2〉, 〈그림 3〉은 전대준·최인철, 『조선단대사』(고조선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70쪽의 '전조선(단군조선) 영역도', 82쪽의 '후조선 영역도', 87쪽의 '만조선 영역도'를 축소하여 제시한 것이다. 참고로 비파형동검문화의 분포 지역을 전조선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 35) 북한학계의 중국 군현에 대한 위치 비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락랑군 | 대릉하 좌우로부터 료동반도 천산산줄기 이서 지역에 위치. 중심지(군소재지)는 고조선의 제2수도인 왕검성(개주시 부근). 료동군 동천 이후 해성 이남, 소자하 이서지역 관할.               |
| 립둔군 | 천산산줄기 이동, 압록강 하구 부근 이서 지역에 위치.                                                                                 |
| 현도군 | 료하 서쪽의 문현(신민 서남), 료하 동쪽의 평파(안산부근), 안시(해성부근) 이북, 즉 본계시, 청원현 서부 이서, 철령 이남 지역에 위치.                                |
| 료동군 | 초기에 료동군은 대릉하 이서지역에 위치하였다가 기원전 1세기 초엽에 동천하여 패수(대릉하) 이동, 료하 이서지역, 료동반도의 해성 이북지역, 거취, 서안평, 무차현, 북으로는 철령 이남지역을 관할. |
| 대방군 | 료동반도 남단의 복주하계선 이남에 위치.                                                                                         |

중국 군현의 위치비정에 대해서는 손영종, 『조선단대사』(고구려사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116~131쪽을 참조한 것이다. 〈그림 4〉와 〈그림 5〉는 손영종, 위의 책, 119쪽의 '기원전 108~107년 고구려 서변 및 락랑, 현도, 립둔군 위치도'와 128쪽의 '기원전 70년대 초 고구려의 서변 및 료동군(동천 후)도'를 축소하여 제시한 것이다.

『조선단대사』(고조선사)에서 한나라가 요동지역에 위치한 부수도 왕검성을 함락시키자, 국왕과 왕자 이하 고위관료의 일부가 투항하고, 일부가 살해되어 결국 만왕조는 종말을 고하였다고 서술하였다.<sup>36)</sup> 고조선의 중심지, 즉 수도는 평양이었는데, 제2왕검성(부수도)이 함락되자, 평양의 왕검성에 있었던 국왕과 왕자 이하 고위관료들이 살해되거나 투항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제2왕검성에 있다가 살해되거나 투항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전자의 가정이 맞다고 한다면,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제2왕검성이 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왕과 왕자 이하 고위관료들이 살해되거나 투항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이해되지 않고, 후자의 가정이 맞다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국왕과 왕자 이하 고위관료들이 평양이 아니라 제2왕검성에 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단대사』(고조선사)에서는 僞書로 알려진 『규원사화』, 『단기고사』, 『단군세기』 등을 사료로서 적극 활용하여 서술하였다.<sup>37)</sup> 또한 『규원사화』와 『단기고사』 등에 전하는 47대 단군의 이름을 인용하여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규원사화』 단군기에 전하는 이른바 8가(호가, 마가, 우가, 웅가, 로가, 학가, 구가)를 고조선의 관직이라고 소개하였다. 나아가 고조선에서 신지라는 사람이 만든 글자인 신지글자(왕문(王文) 또는 삼황내문(三皇內文))를 사용하였다고 서술하기조차 하였다. 현재 북한에서는 계급 관점을 초월한 민족주의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에서 이론화한 ‘수령론’을 연결시킨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앞세우고 있다고 한다.<sup>38)</sup> 단군릉 발굴 이후 고조선에 대한 연구는 바로 이와 같은 역사관에 입각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합리적, 객관적인 학문태도를 완전히 도외시키고,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신화 및 僞書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며 고조선사를 서술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sup>39)</sup>

북한에서 단군이 기원전 30세기 초에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주장하게 되면서, 자연히 고대 노예소유자국가인 부여와 진국, 구려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에 맞추어 대대적으로 수정하였는데, 그것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원전 3000년기 중엽에 고조선의 외곽에 부여와 구려, 진국지역에서 여러 후국이 등장하였다. 두 번째, 기원전 15세기 중엽에 전조선이 쇠퇴하고 후조선이 성립될 때에 구려후국은 고조선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고대국가로 발전하였다. 세 번째, 전조선과 후조선의 교체기인 기원전 15세기 중엽에 부여 후국은 고조선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늦어도 기원전 12세기에 범부여계통의 세력 및 주민을 통합하여 통일적인 고대국가를 수립하였으며, 그 이후 어느 시기에 동명을 중심으로 한 탁리국 출신 세력에 의해 왕조교체가 이루어졌다. 네 번째, 전·후조선의 교체기를 틈타, 조선 중남부지역에 존재한 소국들은 마한과 진한, 변한연맹체를 이루어 단군조선왕조의 지배와 통제로부터 벗어났고, 늦어도 기원전 12세기경에는 그들이 마한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고대국가 진국을 형성하였다. 다섯 번째,

36) 전대준·최인철, 『조선단대사』(고조선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174쪽.

37) 『撰圖史話』, 『檀奇古史』 등이 1920년대 혹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위서라는 사실을 논증한 논고로서 조인성, 「재야사서(在野史書) 위서론(僞書論)」-『단기고사』·『환단고기』·『규원사화』를 중심으로-,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이 참조된다.

38) 김광운, 「북한 민족주의 역사학의 궤적과 환경」, 『한국사연구』 152, 2011, 297쪽.

39) 단군릉 발굴 이후 북한학계의 고조선사 연구동향을 검토한 논고로서 노태돈, 「북한학계의 고조선사 연구동향」, 『한국사론』 41·42합, 서울대 국사학과, 1999; 하문식, 「북한학계의 고조선 연구경향」, 『백산학보』 74, 2006; 조원진, 「최근 북한학계의 고조선 연구동향」, 『고조선단군학』 30, 2014 등을 들 수 있다.

고대국가 부여는 기원전 220~219년에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국왕 대소가 사망하게 되면서 종말을 고하였고, 이후 신흥봉건세력들이 혼란한 정세를 수습하고, 봉건적 질서 밑에 부여 대소왕의 동생 가운데 한 명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여지역에서 독자적인 봉건국가를 건립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후부여였다.<sup>40)</sup>

『조선전사』(1979년)와 『조선단대사』(부여사, 진국사)의 서술을 비교할 때, 후자에서 부여와 진국의 건국 연대를 고조선의 건국과 변천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였던 점이 눈에 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새로 발굴된 고고학적인 자료를 추가하였지만, 대체로 사회정치제도, 경제제도, 문화 등의 서술은 크게 달라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부여의 경우, 『조선전사』(1979년)에서 국왕 밑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었고, 다시 이들 밑에 중앙관직으로서 대사, 대사자, 사자 등이 있었다고 서술하였으나,<sup>41)</sup> 『조선단대사』(부여사)에서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 부여조에 6가지 짐승으로 관직명을 삼았다고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만을 언급하였던 사실을 주목하여, 이들 4가 이외에 부여에 양가(羊加), 녹가(鹿加)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점이 눈에 띈다.<sup>42)</sup>

이밖에 285년 모용외의 침략을 계기로 부여는 동부여와 서부여로 분리되었다가 회덕을 중심으로 한 서부여는 346년 전연 선비족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고, 동부여는 광개토왕대에 고구려에 복속되었다가 494년에 최종적으로 고구려에 병합되었다고 본 점, 서부여 멸망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서부여의 일부 사람들은 나하를 건너가 눈강 하류 북쪽, 동류송화강 북쪽의 토착 부여계통 주민들과 함께 북부여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것이 460년대 이후 470년대 초 사이에 두막루국으로 교체되었으며, 눈강 중하류지방에 부여 계통의 사람들이 세운 오락후국이라는 소국이 북부여 및 두막루국의 후국으로 존재하였다고 서술한 점 등도 새로 추가한 내용으로서 주목된다고 하겠다.<sup>43)</sup>

1980년대까지 북한에서는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 초에, 백제는 기원 1세기 전반기에, 신라는 2세기 초중엽에 봉건국가를 형성하였다고 이해하였다. 1979년에 출간한 『조선전사』 3과 『조선전사』 4에서 북한학자들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기년을 그대로 신뢰한 대신에 신라본기의 기년은 약간 하향시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신라본기 초기기록에 전하는 신라와 다른 나라와의 충돌기사는 고구려와 백제, 낙랑, 말갈 등이 진한과 관계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다.

북한학계의 삼국에 대한 이해는 1990년대에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손영종이 1990년 8월에 『고구려사』 1을 출간하였고, 1991년에 『조선전사』 3의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이들 두 단행본에서 손영종은 고구려 건국 이전에 고대 노예소유자국가로서 구려국이 존재하였고, 주몽이 기원전 277년에 봉건국가인 고구려를 건국하

40) 이상의 내용은 권승안, 『조선단대사』(부여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문혁, 『조선단대사』(진국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손영종, 『조선단대사』(고구려사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에서 정리한 것이다.

41)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120쪽.

42) 권승안, 『조선단대사』(부여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42~43쪽.

43) 권승안, 위의 책, 150~169쪽; 이종수, 앞의 논문, 2016, 179~181쪽.

참고로 권승안은 두막루국은 6세기 중엽에 고구려에 통합되어 자치지역으로 되었고, 오락후국은 6세기 중엽에 고구려가 통합하였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고구려는 오락후국 남쪽 부여 계통 주민들이 살던 지역은 북부여성주를 두어 직접 통치하였고, 실위 계통 주민들이 살던 지역은 속령으로 삼고 월희주를 두어 통제하였으며, 이것은 발해의 행정단위로 계승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였다고 주장하였다. 손영종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보장왕 27년 2월 기록에 ‘高句麗祕記에 (고구려가) 900년이 되기 전에 마땅히 八十 大將이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전하는 사실 및 고구려본기에서 주몽이 기원전 37년에 고구려를 건국하였다고 전하는 사실 등을 주목하여, 기원전 37년에서 240년 소급 상향한 기원전 277년(갑신년)에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였다고 보았던 것이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고구려조에 계루부가 왕권을 차지하기 이전에 消奴部에서 왕위를 계승하였다고 전한다.<sup>44)</sup> 남한학계에서는 기원전 37년 또는 기원 전후 무렵에 주몽의 계루집단이 소노집단을 대신해 고구려 연맹체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45)</sup> 그런데 손영종은 주몽이 부여에서 졸본 천(비류수)으로 이주한 후에 소서노와 결혼하여 세력을 키웠고, 기원전 278년에 과루부(계루부)의 귀족평의회에서 그 부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며, 기원전 277년에 연나부(연노부) 소속의 구려왕이 그의 둘째 딸을 주몽에게 시집보냈다가 바로 급사하자, 사위인 주몽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고구려 5부 전체의 합법적인 통치자가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주몽은 곧바로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고친 다음, 나라의 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질서-봉건적 질서를 세워나가게 되었다고 이해하였다.<sup>46)</sup> 이와 같은 내용은 2006년 3월에 발간한 『조선단대사』(고구려사1)에서도 그대로 반복하여 서술하였음이 확인된다.

손영종은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연대를 기원전 277년이라고 주장하며 고구려본기의 기년을 대폭 상향하여 수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몽에서 대무신왕대까지의 고구려본기 기록 가운데 중국 군현세력과 충돌한 대외관계 기사를 제외하고, 순수한 고구려 관련 기사의 기년을 대부분 새로 비정하기도 하였다.<sup>47)</sup> 『조선단대사』(고구려사1)에서 제시한 고구려본기 일부 연대 추정표에서 손영종은 기원전 277년 고구려의 건국설에 맞추어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백제 봉건소국의 왕이 된 시기를 기원전 18년에서 240년 소급한 기원전 258년이라고 수정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손영종은 주몽이 고구려의 건국시조이고, 유리명왕과 대무신왕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전하는 것처럼 기원전 19년과 기원 18년에 즉위하였으며, 『삼국사기』에는 주몽과 유리명왕 사이에 존재하였던 5명의 왕명이 전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음, 구체적으로 5명의 왕을 복원하여 새로운 고구려 초기 왕계를 정립하여 제시하였다. 손영종이 새로 정립한 고구려 초기 왕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동명왕(주몽 : 기원전 277~기원전 259) - 유리왕(기원전 259~기원전 236) - 여류왕(기원전 236~기원전 223) - 대주류왕(막래 : 기원전 223~기원전 138) - 애루왕(기원전 138~기원전 93) - 중해왕(기원전 93~기원전 19) - 류리명왕(기원전 19~기원 19) - 대무신왕(기원 19~기원 44).<sup>48)</sup>

44) 『삼국지』 위서 동이전 고구려, “本有五族 有涓奴部·絶奴部·順奴部·灌奴部·桂婁部·本涓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 참고로 『후한서』 동이열전 고구려조에는 涓奴部가 아니라 消奴部로 표기되어 있다. 남한학계에서는 涓奴部는 消奴部の 오타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북한학계에서는 연노부를 그대로 수긍하고, 이것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椴那部라고 이해하고 있다.

45)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58~62쪽.

46) 손영종, 『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21~22쪽.

47) 손영종, 위의 책, 55~56쪽 및 손영종, 『조선단대사』(고구려사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90~91쪽에 전하는 고구려 초기 일부 연대 추정표에서 고구려본기의 기년을 수정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손영종은 『조선단대사』(고구려사1)에서 일제의 어용사기와 이들의 영향을 받은 남한(남조선)의 일부 역사자들 속에서도 고구려의 건국연대를 비롯하여 삼국의 형성연대를 2세기(고구려), 3세기(백제), 4세기(신라)로 늦잡는 견해들이 지배적이라고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기신라의 역사편찬자들이 신라정통설을 조작하기 위하여 신라의 건국연대를 기원전 57년으로 만드는 동시에 고구려의 건국연대는 그보다 더 늦은 것으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49)</sup>

한편 고구려본기에 태조왕과 차대왕(수성), 신대왕(백고)이 형제 사이였고, 태조왕이 94년 동안 재위하였다고 전한다. 반면에 『후한서』 동이열전 고구려조에 遂成은 함(태조왕)의 아들, 伯固는 수성(차대왕)의 아들이며, 백고가 132년에서 169년 사이에 생존한 것으로 전한다.<sup>50)</sup> 고구려본기에서는 『해동고기』의 기록을 존중하여, 태조왕은 53년에서 146년, 차대왕은 146년에서 165년, 신대왕은 165년에서 179년 사이에 재위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손영종은 고구려본기와 『후한서』의 기록이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을 언급하면서, 『후한서』의 기록은 믿을 수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펴낸 해동의 고기 또는 『해동고기』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51)</sup> 이와 같은 손영종의 주장은 북한학계에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그대로 신뢰하는 흐름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1980년대까지 북한에서는 기원전 1세기 후반기에 백제 소국이 등장하였고, 1세기 전반기에 백제 봉건국가가 성립되었다고 이해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고구려의 건국연대를 상향 조정하면서, 노예소유자국가인 진국에서 봉건화과정이 진행되던 기원전 3세기 중엽에 북쪽으로부터 선진적인 제도와 기술, 문화를 가진 고구려사람들의 한 집단이 진국의 영역인 한강유역에 정착하여 백제소국을 건국하였고, 기원전 1세기 말엽(구체적으로 기원전 18년)에 확대된 영토와 강화된 국력에 기초하여 백제 봉건국가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온조가 기원전 258년(기원전 3세기 중엽)에 백제소국을 건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온조와 다루왕 사이에 여러 명의 왕이 존재하였는데, 그 왕명이 『삼국사기』에 누락되었다고 보고, 온조왕 다음에 음태귀수왕이, 그 다음에 덕좌왕이 즉위하였으며, 덕좌왕과 다루왕 사이에 6대왕 정도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음, 다루왕의 부왕(재위 기간 기원전 18~기원 28)이 바로 백제 봉건국가를 세운

48) 손영종, 『조선단대사』(고구려사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51쪽.

49) 손영종, 『조선단대사』(고구려사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88쪽 및 93쪽.

50) 『후한서』 동이열전 고구려, “建光元年(121년)春 幽州刺史馮煥·玄菟太守姚光·遼東太守蔡邕等 將兵出塞擊之 捕斬濊貊渠帥 獲兵馬財物。宮乃遣嗣子遂成將二千餘人逆光等……是歲宮死 子遂成立。……遂成死 子伯固立。其後濊貊率服 東垂少事。順帝 陽嘉元年(132年)置玄菟郡屯田六部。質桓之閒 復犯遼東西安平 殺帶方令 掠得樂浪太守妻子。建寧二年(169年)玄菟太守耿臨討之 斬首數百級 伯固降服 乞屬玄菟云。”

한편 노태돈, 앞의 책, 1999, 71~72쪽에서 『後漢書』卷51 喬玄傳에 165년 무렵에 백고를 嗣子라고 전한 것을 근거로 하여, 백고, 즉 신대왕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전하는 것처럼 165년 무렵에 즉위하였다고 이해하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51)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제3 태조왕 94년 12월, “後漢書云 安帝建光元年 高句麗王宮死 子遂成立。玄菟太守姚光上言 欲因其喪發兵擊之。議者皆以爲可許。尙書陳忠曰 宮前築點 光不能討 死而擊之 非義也。宜遣吊問 因責讓前罪 赦不加誅 取其後善。安帝從之。明年 遂成還漢生口。案海東古記 高句麗國祖王高宮以後漢建武二十九年癸丑即位 時年七歲 國母攝政。至孝桓帝本初元年丙戌 遜位讓母弟遂成 時宮年一百歲 在位九十四年。即建光元年 是宮在位第六十九年 即漢書所記與古記抵牾不相符合。豈漢書所記誤耶。”

손영종, 『조선단대사』(고구려사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50~56쪽.

한편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고구려사 연구동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성제, 「북한의 고구려사연구와 역사인식」, 『고구려 발해연구』 18, 2004; 김현숙, 「동북공정」 이후 북한의 고구려사 연구동향, 『국학연구』 21, 2012 등이 참조된다.

중흥시조격이라고 규정하였다.<sup>52)</sup>

1980년대까지 북한에서는 봉건국가로서 신라는 기원 2세기 초중엽에 성립되었다고 이해하였다. 그런데 2010년에 간행한 『조선단대사』(신라사1)에서는 진한지역에 고조선 멸망 후에 그 유민들과 북방에서 온 이주민들, 토착세력을 기본으로 하는 6개 마을(촌)로 이루어진 연합체로서 사로국이라는 소국이 등장하였고, 기원전 1세기 초엽의 사회적, 정치적 변혁기에 박혁거세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력이 사로지역에 나타나 토착세력과 융합되었으며, 그 결과 박혁거세를 왕으로 하는 새로운 사로국(고대 진국시기의 사로국과 나라 이름은 같지만, 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나라, 즉 봉건사로국)이 형성되었다고 수정하였다. 그리고 봉건사로국이 삼국시기를 대표할 수 있는 나라인 봉건국가로 발전한 것은 기원 1세기 초중엽인데, 아마도 그 시기는 유리이사금 때였던 것 같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유리이사금을 중흥시조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새롭게 제기하기도 하였다.<sup>53)</sup>

한편 『조선단대사』(신라사2) 말미에서 강세권은 삼국시기 역사의 전반 흐름을 놓고 볼 때, 그 흐름을 주도한 것은 강대국인 고구려였고, 전기신라사는 그 흐름에서 하나의 지류에 불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라사가 봉건사가들에 의하여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게 삼국시기를 주도한 기본흐름으로 둔갑하게 되었으며, 그 밑바탕에는 고구려, 백제의 멸망과 함께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고 하는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론’이라는 것이 깔려있다고 총평하였다. 그러면서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이고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결과, 우리 민족에 차례진 것은 강력한 통일국가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전해내려 온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과 적지 않은 민족성원의 상실이라는 비극적 사태였으며, 그 후 우리 민족이 겪은 우여곡절의 시초는 여기에 발단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부연 설명하였다. 나아가 삼국 말기에 신라가 한 역할이란 이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라를 놓고 통일신라니 뭐니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는 황당무계한 궤변일 뿐이라고 일침하였다.<sup>54)</sup>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다고 인식하는 경향에 대한 북한학계의 부정적 인식을 매우 강렬하게 표현한 대목으로서 유의된다고 하겠다.

『조선전사』 4(1979년)에서 봉건국가로서 금관국은 2세기 중엽이거나 그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성립되었다고 서술하였다. 반면에 조희승은 2011년에 집필한 『조선단대사』(가야사)에서 고조선유민들이 남하하여 기원전 1세기경에 진국의 변한지역에 구야(가야) 봉건소국을 세웠고, 1세기 초엽에 북쪽에서 남하한 김수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정치세력이 구야(가야) 땅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에 와서 이미 있던 지배세력과 결합하여 자

52) 조희승, 『조선단대사』(백제사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13~26쪽.

한편 북한에서는 기원전 3세기 중엽에 건국된 백제소국은 마한에 복속되어 있다가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26년 10월 기록에 백제가 마한을 공격하여 그 國邑을 병합하였다고 전하는 사실을 그대로 믿어 기원 9년에 백제가 마한 후기의 국읍인 익산을 차지하고 고대 노예소유자국가인 마한을 멸망시켰으며, 나아가 3세기 말까지 전라도지방에 잔명을 유지하던 마한 소국들이 중국적으로 백제의 지배-통제 속에 들어갔다고 이해하였다(문혁, 『조선단대사』(진국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139~140쪽). 참고로 남한학계에서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 辰王이 月支國, 즉 目支國을 다스린다고 전하는 기록을 주목하여 백제가 마한의 목지국을 압도하고 마한의 대표세력으로 부상한 것은 3세기 중반 이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53) 강세권, 『조선단대사』(신라사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17~42쪽.

54) 강세권, 『조선단대사』(신라사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165~167쪽.

기의 지배권을 확립한 다음, 기원 1세기 중엽경에 금관국을 중심으로 하는 가야 봉건국가들의 연맹체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55)</sup>

『조선전사』 4(1979년)에서 가야사 서술 분량은 겨우 20쪽에 불과하였는데, 『조선단대사』(가야사)의 서술 분량은 그것보다 10배가 넘는 243쪽에 달하였다. 조희승은 6가야의 흥망성쇠, 대가야의 발전과 쇠퇴·멸망에 대해 남한의 고고학 발굴조사를 적극 활용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였고, 이밖에 자신이 저술한 『초기조일관계사』에 근거하여 가야인들의 일본열도 진출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기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한학계에서는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2 오가야조에 나오는 5가야 가운데 古寧伽耶와 星山伽耶의 경우, 신라말·고려초에 고령(상주시 함창읍)과 성산(성주군 성주읍)의 豪族이 반신라적인 명분을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비로소 고령가야, 성산가야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다고 이해하고, 그것들은 가야연맹체에 속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sup>56)</sup> 이에 반해 조희승은 『조선단대사』(가야사)에서 성산가야와 고령가야를 가야연맹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면서, 고령가야의 경우, 초기에는 상주시 함창읍에 위치하였다가 3세기 후반경에 가리현, 즉 오늘날 고령군 성산면으로 옮겨갔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조선단대사』(신라사3; 발해사1~3)에서 서술한 후기신라(통일신라)와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는 1980년대의 이해와 맥락상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발해사에 대한 서술 분량이 대폭 늘어나 서술 내용이 매우 풍부해졌는데, 1990년대 이래 북한학계의 발해사 연구성과를 적절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다만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발해에서 독자적으로 이두식 한자를 사용하였다는 사실, 『협계태씨족보』 및 여기에 전하는 『단군봉장기년』,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이 再編하였다고 전하는 『단기고사』, 『태백일사』에 인용되어 있는 『조대기』 등을 발해 시대에 편찬된 역사서로 인정하였다는 사실 등이다. 특히 발해시기에 편찬된 『단군봉장기년』의 기사에 근거하여 『단기고사』나 『규원사화』의 저자들이 단군조선의 47대 왕들의 이름을 밝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이어 『단군봉장기년』과 『조대기』의 발해 관계 기사는 역사자료로서 이용가치가 높지만, 『단기고사』에는 고조선의 건국연대와 수도 문제, 그리고 전·후단조(전기·후기 단군조선) 문제 등 심히 외곡(왜곡)된 서술이 많으므로 비판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이 유의된다고 하겠다.<sup>57)</sup> 참고로 남한학계는 『협계태씨족보』 및 『단기고사』, 『태백일사』 등은 근대에 와서 성립된 것으로 역사 자료로서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상에서 언급한 책들을 인용하여 서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2. 남한학계의 연구지평의 확대와 상고사논쟁의 격화

1971년과 1972년의 2년간에 걸쳐 발표된 고대사 논문은 약 50편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개설적인 수준과

55) 조희승, 『조선단대사』(가야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14~22쪽.

56)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72~74쪽.

57) 채태형, 『조선단대사』(발해사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114~117쪽 및 124~137쪽.

수준 미달로 여겨지는 것을 제외하면 약 30편 정도였다고 한다.<sup>58)</sup> 그리고 1976년부터 1978년까지 3년 사이에 발표된 고대사 단행본은 5권, 논문은 40여 편이었다고 한다.<sup>59)</sup> 또한 1979년에서 1983년까지 5년 사이에 발표된 고대사 논문은 모두 250편 내외로 연평균 약 50여 편 정도였고,<sup>60)</sup> <표 3>에 따르면, 1988년에 학계에 발표된 고대사 논문은 130여 편 정도, 1993년과 1998년에 발표된 고대사 논문은 200여 편, 180여 편 내외였음을 알 수 있다.<sup>61)</sup> 또한 1996년과 1997년 2년간에 걸쳐 발표된 고대사 저서는 41권, 논문은 278편이었다고 한다.<sup>62)</sup> 1990년대를 마감하는 1999년에는 고대사를 다룬 단행본이 16권, 논문이 213편 정도 발표된 것으로 확인된다.<sup>63)</sup>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학계에 발표된 고대사 논문 수를 정리한 것이 <표 12>이다.

〈표 12〉 2000~2017년에 발표된 고대사 논문 현황<sup>64)</sup>

| 연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논문 수 | 317  | 341  | 378  | 420  | 399  | 325  | 388  | 411  | 357  | 455   |
|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합계    |
| 논문 수 | 451  | 449  | 353  | 436  | 464  | 549  | 519  | 523  |      | 7,535 |

<표 12>를 통해, 2000년대에 1년에 300여 편을 훨씬 넘는 논문이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2009년 이후 400여 편을 넘기다가, 2015년 이후에는 500여 편이 넘는 고대사 논문이 발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에 고대사 논문이 1년에 겨우 20편만 발표된 데 그쳤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40여 년이 흐른 지금 그것의 20배가 훨씬 넘는 고대사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2000년대에 들어 연구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 것임은 물론이다.

여기다가 고대사 전반뿐만 아니라 백제사, 신라사 전반을 총체적으로 다룬 총서가 발간되어 연구자와 일반 대중들의 고대사에 대한 이해의 진전에 크게 기여하였던 사실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고대사 회연구소에서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강좌 한국고대사』 10권을 발간하였는데, 2000년 이전 고대사 연구 성과를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2000년 이후의 연구전망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고대사연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국고대사학회에서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1988년 이래 20여 년간의 고대사 연구성과를 정리한 『한국고대사연구의 새동향』(서경문화사)을 2007년 7월에 출간하였다. 이것은 한국고대사를 연구하는 전문 학자, 대학원생과 대학생, 그리고 고대사에

58) 민현구, 「고대」, 『역사학보』 60, 1973, 6쪽.

59) 최병현, 「고대」, 『역사학보』 84, 1979, 9쪽.

60) 이기동, 「고대」, 『역사학보』 104, 1984, 162쪽.

61) <표 3>에는 1988년과 1993년, 1998년에 발표된 한국고대사 논문 수 가운데 국가를 중복하여 계산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제시한 숫자보다 적게 발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62) 최광식, 「고대」, 『역사학보』 159, 1998, 11쪽.

63) 전덕재, 「고대」, 『역사학보』 171, 2001, 13쪽.

64) <표 12>는 국가별로 발표된 논문의 수를 합한 것이다. 논문 가운데 국가가 중복된 경우는 국가별로 1편씩 계산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발표된 논문 수는 <표 12>에 제시된 숫자보다 더 적었다고 볼 수 있다.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고대사 연구성과 및 연구방향을 알려주는 좋은 길잡이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2007년에 백제문화재개발연구원에서 33책에 이르는 역사문고 시리즈를 완간하였고, 같은 해에 충청남도 역사문화원에서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15권을 발간하였다. 이것은 1970년 백제사연구가 본격화된 이래 30여 년에 걸친 백제사에 대한 학문적 성과와 그 발전상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백제사연구상에서 일대 획기라고 평가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2016년 11월에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총서 22권과 자료집 8권을 출간하였다. 연구총서 22권은 신라의 출발이 되는 사로국의 태동에서부터 삼국통일의 완성을 거쳐 고려로 이어지는 신라사의 전체 흐름을 정리한 것(7권)과 신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15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연구총서는 향후 신라사뿐만 아니라 한국고대사에 대한 이해와 연구, 그리고 대중화를 진전시키는 데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래에 들어 1년에 500여 편이 넘는 고대사 논문이 발표되는 현실을 감안하건대, 2000년 이후 남한학계의 연구동향을 제한된 지면에 깔끔하게 망라하여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2000년 이후에 남한학계 고대사연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몇 개의 키워드를 제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삼국 초기 정치체제, 동북공정, 도성과 왕경, 새로운 자료의 발견, 상고사논쟁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이들 키워드를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남한학계의 연구동향과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2000년 이전에 『삼국지』 위서 동이전 고구려조에 전하는 기록과 울진봉평신라비, 영일냉수리신라비 등을 근거로 고구려와 신라 초기의 정치체제와 지배체제를 부체제라고 이해한 견해가 제기되었다.<sup>65)</sup> 이와 더불어 단편적인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백제 초기의 지배체제와 정치체제도 5부체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제출되었고,<sup>66)</sup> 나아가 고조선과 부여, 가야의 지배체제 역시 부체제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연구성과도 다수 발표되었다.<sup>67)</sup> 반면에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신뢰하는 연구자는 부체제론을 부정하고, 삼국 초기의 부는 왕경의 행정구역단위였으며, 당시의 정치체제는 상당히 집권적인 모습을 띠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sup>68)</sup> 또한 고조선과 부여 등에서 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부각시켜 고조선과 부여, 삼국 초기의 정치체제는 부체제가 아니라 귀족합의체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도 제출되었다.<sup>69)</sup>

2000년 이후 대부분의 고구려사 연구자들은 고구려 초기의 정치체제와 지배체제를 5부체제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2009년에 포항중성리신라비가, 2013년에 금관총 출토 환두대도에서 ‘余斯智

65) 노태돈, 「삼국시대의 부에 관한 연구 - 성립과 구조를 중심으로 -」, 『한국사론』 2, 서울대 국사학과, 1975에서 처음으로 삼국 초기의 지배체제와 정치체제를 부체제라고 규정하였고, 이후 울진봉평신라비와 영일냉수리신라비가 발견되면서 부체제설의 입론이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66)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 국가형성과 지배체제의 변천을 중심으로 -』, 일조각, 1988.

67) 노태돈, 「위만조선의 정치구조」, 『汕菰史學』 5, 고려학술문화재단, 1998; 노태돈, 「초기 고대국가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 - 부체제론을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17, 2000; 노중국, 「대가야의 정치·사회구조」, 『가야사연구 - 대가야의 정치와 문화 -』, 경상북도, 1995; 백승충, 「가야의 정치구조 - 부체제론의 논의와 관련하여 -」, 『한국고대사연구』 17, 2000.

68) 이종욱, 「한국고대사의 새로운 체계」, 『역사학보』 166, 2000; 이종욱, 「한국 고대의 부와 그 성격 - 소위 부체제설 비판을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17, 2000.

69) 김영하, 「한국 고대국가의 정치체제론 - 부체제 논쟁에 대한 소견을 대신하여 -」, 『한국고대사연구』 17, 2000.

王'이란 명문이 발견된 이래, 6세기 전반 이전에 신라의 지배체제와 정치체제는 6부체제였다는 견해가 신라사 연구자들 사이에 널리 공감을 얻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백제와 가야, 고조선과 부여의 경우는 부에 관한 자료가 영성한 편이기 때문에 여전히 백제 초기와 가야 등의 정치체제를 부체제로 볼 것인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중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백제의 경우,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전하는 5부 관련 기록을 근거로 하여 초기에 5부는 지방통치구획, 행정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구획한 행정·군사적 단위체로 이해하는 연구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도 부체제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발견되기까지 백제 초기와 가야, 고조선, 부여의 정치체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로 지금까지 북한과 일본학계에서 부체제론을 수용하여 고구려사와 신라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좀처럼 찾기 힘든 실정이다.

필자가 두 번째 키워드로 제시한 것이 바로 동북공정이다.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추진한 이후, 중국의 고구려, 발해에 대한 인식과 연구동향을 다룬 논고가 대거 발표되었고, 고구려연구재단 소속 연구원을 비롯하여 고구려사와 발해사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동북공정에 대응한 고구려·발해에 대한 연구가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앞에서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한 바 있고, 게다가 이에 대한 국내 학계의 대응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 자세하게 검토한 논고가 적지 않게 발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에 대한 더 이상의 논급을 자제하도록 하겠다.<sup>70)</sup>

필자가 제시한 세 번째 키워드인 도성과 왕경은 고고학 발굴조사와 비교사적인 연구방법론에 따른 연구지평의 확대와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1990년대 이래 신라의 수도인 경주와 백제의 수도인 부여에 대한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결과 도성과 왕경 내에 위치한 사찰과 건축유지뿐만 아니라 도로유구 등이 대거 발견되었다. 2000년 이후에 경주와 부여의 도로유구에 기초하여 신라와 백제 도성(왕경) 도시계획의 양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신라 왕경과 사비도성의 공간구조와 그 변천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이러한 연구는 중국과 일본 도성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동북공정 이후에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졸본(환인현)과 국내성, 평양성과 장안성, 그리고 발해 상경성의 공간구조 및 도시계획 양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고구려와 발해의 도성에 대한 연구성과가 다수 학계에 발표되기도 하였다. 근래에 고구려와 백제, 신라 도성(왕경)을 비교 검토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한성시기 백제의 도성에 대한 연구성과도 조금씩 학계에 발표되고 있다.

2010년 이후에 신라 왕경에서 정궁과 동궁 등이 위치한 월성과 안압지(월지)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신라의 궁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후 신라를 벗어나 백제와 고구려, 발해 왕궁에 대한 관심으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성과 왕경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천도문제와 도성(왕성)의 방어체계, 소경을 비롯한 지방도시의 공간구조와 그 변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심화되기도 하였다. 앞으로 신라 왕경과 왕궁유적, 백제 한성과 사비도성, 고구려의 국내성·장안성 및 발해 상경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삼국과 발해 및 고대 중국·일본 도성과의 비교검토가 활발하게

70) 남한학계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 논고로서 김영심, 「남한학계의 동북공정 대응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사문화연구』 39, 2011이 참조된다.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대의 도성과 왕경, 왕궁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다.<sup>71)</sup>

2000년 이후 남한에서 고대사연구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새로 발견된 목간과 금석문이었다. 2000년 이후 새로 발견된 자료 가운데 신라사와 백제사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은 계기를 제공한 것이 바로 木簡이었다. 일제식민지시기에 낙랑목간 120여 점이 발견되었고, 1990년대까지 경주 안압지와 월성 해자, 충남 부여 등에서 목간이 다수 발견되었지만, 학계의 커다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1991년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에 위치한 함안 성산산성에서 신라목간이 대거 출토되었고, 이를 계기로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sup>72)</sup> 2004년에 당시까지 출토된 목간을 모두 모은 자료집인 『한국의 고대목간』을 출간하였다. 일반적으로 이것의 출간 이후 한국고대사학계에서 목간을 활용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고 이해하고 있고, 국내에서 다량의 목간이 계속 발견된 데에 힘입어 2007년에 한국목간학회가 창립되기도 하였다.

2013년까지 충남 부여지역에서 판독 가능한 목간 62점이 조사되었고, 2008년에 나주 복암리 제철유적에서 목서가 확인된 목간 40여 점이 발견되었다. 백제목간 가운데에는 진대법과 관련이 깊은 佐官食記 목간과 九九段 목간 등이 커다란 주목을 끌었고, 이밖에도 7세기 백제의 정치제도와 생활모습, 문자생활, 문서행정을 엿볼 수 있는 목간들이 발견되어 백제사연구와 이해의 심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주 복암리 목간은 7세기 전반 백제의 지방지배 양상과 호구 편제, 수취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았고, 현재에도 그것을 기초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73)</sup>

경주 안압지와 월성해자에서 발견된 수십 여점의 목간을 통해 7세기 이전 신라의 문서행정, 문자생활, 통일신라의 동궁을 비롯한 궁정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가 크게 진전되었다.<sup>74)</sup> 2017년까지 함안 성산산성에서 목간 255점이 발견되었는데,<sup>75)</sup> 성산산성 출토 목간을 기초로 하여 중고기 신라의 지방행정체제와 수취체제에 대한 이해가 크게 진전되었고, 당시 신라인의 문자생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어느 정도 가능해졌으며, 문서행정의 실태도 부분적으로 복원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문헌에 보이지 않는 及伐尺이라는 외위 관등이 성산산성 출토 목간에 다수 전하여서 신라 관등제 운영에 대한 새로운 知見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sup>76)</sup> 현재 학계에서는 중고기에 제작된 금석문들 못지않게 함안 성산산성 목간들을 중고기 신라의 역사를 연구하

71) 삼국 및 발해의 도성(왕경)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로서 전덕재, 『신라 왕경의 역사』, 새문사, 2009; 전덕재, 「한국 고대의 왕경과 도성, 지방도시」, 『역사학보』 207, 2010; 양시은, 「고구려 도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고구려발해연구』 50, 2014; 여호규, 「한성시기 백제의 도성제와 방어체계」, 『백제연구』 36, 2002; 박순발, 「백제도성의 시말」, 『중앙고고연구』 13, 2013; 임상선, 「발해 도성제와 그 특징」, 『한국사학보』 24, 2006; 김진광, 「발해 도성의 구조와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문화재』 45, 2012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 고구려와 백제, 발해의 천도 및 삼국과 발해 왕궁에 대한 연구성과가 상당수 제출되었는데, 여기서는 그에 대하여 일일이 거명하지 않도록 하겠다.

72) 참고로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는 2007년 11월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로 개칭하였다. 한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11년에 당시까지 발견된 목간을 기초로 『한국목간대전』을 출간하여 목간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73) 윤선태, 「백제 목간의 연구현황과 전망」, 『백제문화』 49, 2013; 홍승우, 「부여지역 출토 백제목간의 연구현황과 전망」, 『목간과 문자』 10, 2013; 이용현, 「나주 복암리 목간의 연구현황과 전망」, 『목간과 문자』 10, 2013.

74) 홍기승, 「경주 월성해자·안압지 출토 신라목간의 연구동향」, 『목간과 문자』 10, 2013.

75) 최장미,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목간과 문자』 18, 2017, 192쪽.

76) 윤선태, 「신라의 초기 외위체제와 급벌척」, 『동국사학』 61, 2016.

는 귀중한 자료로서 주목하고 있고, 성산산성 목간에 기초한 연구성과를 통하여 중고기 신라사에 대한 지평이 크게 넓혀졌다고 이해되고 있다.<sup>77)</sup> 이밖에 경주 황남동, 전인용사지, 국립경주박물관 부지, 창녕 화왕산성 연지, 하남 이성산성, 익산 미륵사지에서 다수의 신라목간이 발견되었다.

일제식민지시기에 낙랑목간이 발견되었지만, 학계의 커다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 평양 낙랑구역 정백동 364호분에서 110여 매에 이르는 논어 죽간과 3점으로 이루어진 樂浪初元四年縣別戶口簿 목간이 출토되었다. 논어 목간은 김해 봉황대와 인천 계양산성에서도 발견된 바 있었다. 정백동 364호분 출토 논어 죽간은 기원전 1세기 중반에 한나라에서 유가이념이 강조되어 낙랑군의 識者層 사이에서 유교경전을 널리 읽었음을 알려주고, 호구부 목간은 기원전 1세기 낙랑군의 인구현황과 통치방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호구부 목간은 낙랑군의 치소가 평양이었음을 알려주는 고고학적인 자료로서 또 다른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sup>78)</sup> 목간은 앞으로도 계속 발굴될 가능성이 높아 목간의 목서를 통한 고대사회에 대한 이해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0년 이후 목간과 더불어 신라사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2009년 5월에 경북 포항시 흥해읍 중성리에서 발견된 포항중성리신라비였다. 현재까지 중성리비를 다룬 논고가 40여 편 정도 발표되었고, 비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논고도 적지 않게 제출되었다. 지금까지 중성리비에 관한 수십 편의 논고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중성리비의 건립연대를 둘러싸고 441년(눌지마립간 25)설과 501년(지증왕 2)설이 양립하고 있고, 게다가 판독과 해석을 둘러싸고도 이견이 분분한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성리비에 6세기 초반 6부의 성격과 정치체제를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경위와 외위 관등의 성립과정 및 율령의 정비과정, 5세기말 지방사회의 구조와 신라의 지방지배 양상을 엿볼 수 있는 핵심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울진봉평신라비·영일냉수리신라비와 더불어 포항중성리신라비의 발견은 5~6세기 신라사에 대한 연구와 이해의 진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보아도 과히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던 신라사의 수수께끼가 차근차근 풀리지 않을까 기대되고 하겠다.<sup>79)</sup>

2009년 1월에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사리봉안기가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639년(무왕 40) 정월에 백제 무왕의 왕비인 佐平 沙毛積德의 딸이 사리기를 발원하여 봉안하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리봉안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학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삼국유사』 권제2 기이제2 무왕조에 나오는 진평왕의 딸 善花公主의 存否 여부, 沙毛(沙宅)氏와 익산과의 관계, 미륵사의 창건 주체, 무왕과 의자왕 및 사택씨와의 역학관계 변화에 따른 정치변동 등에 관해서였다. 사리봉안기의 발견으로 선화공주는 설화상의 인물이었다

77)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을 둘러싼 기존의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전덕재,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신라문화』 31, 2008; 전덕재, 「한국의 고대목간과 연구동향」, 『목간과 문자』 9, 2012, 22~24쪽; 윤선태, 「한국 고대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사학보』 38, 2016, 396~402쪽이 참조된다.

78) 윤용구, 「平壤出土『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研究」, 『목간과 문자』 3, 2009; 이성시·윤용구·김경호, 「평양 정백동364호분출토 죽간 '논어'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 4, 2009.

79) 포항중성리신라비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이영호, 「신라의 신발견 문자자료와 연구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7, 2010; 이부오, 「포항중성리신라비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고대사탐구』 16, 2014 등이 참조된다.

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고, 무왕과 의자왕대 백제 정치세력의 동향과 정치변동에 대한 새로운 지견을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sup>80)</sup>

2006년 이래 중국에서 동북공정의 추진이 주춤해지면서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을 크게 환기시키는 데에 기여한 것이 바로 2012년 7월에 중국 集安市 麻線鄉에서 발견된 집안고구려비이다. 2016년 12월까지 중국과 한국, 일본의 연구자들이 집안고구려비에 대한 논고를 100여 편 발표한 것으로 확인된다. 집안고구려비에는 고구려 시조의 출자와 건국, 守墓制의 시행과 변천, 광개토왕의 교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율령과 관계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구려사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신라사와 백제사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집안고구려비를 통하여 고구려 율령의 정비와 그 내용 및 개정 현황, 고구려 왕릉의 수묘와 제사, 시조에 대한 인식의 폭이 크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전하는 王名을 비롯한 단편적인 정보를 통해 4-5세기 고구려 역사상에 대한 풍부한 지견을 얻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향후 광개토왕릉비 및 모두루묘지와 더불어 집안고구려비는 고구려사연구의 심화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다.<sup>81)</sup>

이밖에 2000년 이후에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이 다수 소개되면서 7세기 고구려·백제의 관직제도와 지방통치체제, 고구려와 백제에 이주한 중국계 귀화민의 존재양태, 삼국유민의 당에서의 활동, 삼국유민의 출자 의식 등에 대한 이해가 크게 진전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근래에 유민묘지명에 대한 연구가 주로 신진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에 대한 연구가 최근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트렌드임을 시사해주고 있어 유의된다고 하겠다.<sup>82)</sup>

한편 2000년대 전반까지 신라 촌락문서에 기초한 통일신라의 수취제도와 토지제도, 帳籍文書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고대 중국과 일본의 帳籍文書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통일신라 戶等の 산정 기준 및 計烟과 孔烟의 성격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심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 촌락문서를 기초로 하는 연구가 거의 보이지 않고, 고대의 토지제도와 경제제도에 대한 연구성과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sup>83)</sup> 특히 근래에 들어 신진연구자 가운데 경제사를 전공하는 경우가 눈에 띄지 않는 데, 한국 고대의 경제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침체될 것임을 예상케 해주는 측면으로서 유의된다고 하겠다. 함안 성산산성에서 수취와 관련된 목간이 대거 발견된 점, 부여와 나주 북암리에서 출토된 백제

80) 김주성, 「미륵사지 서탑 사리봉안기 출토에 따른 제설의 검토」, 『동국사학』 47, 2009; 임혜경, 「미륵사지 출토 백제 문자자료」, 『목간과 문자』 13, 2014.

81) 2016년 12월까지 진행된 집안고구려비를 둘러싼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여효규, 「한·중·일 3국 학계의 〈집안고구려비〉 연구동향과 과제」, 『동방학지』 177, 2016이 참조된다.

82) 윤용구, 「중국 출토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 연구현황」, 『한국고대사연구』 75, 2014; 김영심, 「유민묘지로 본 고구려, 백제의 관제」, 『한국고대사연구』 75, 2014; 최상기, 「백제 멸망 이후 예씨(禰氏) 일족의 위상」, 『역사와 현실』 101, 2016; 여효규, 「新發見 高乙德墓誌銘을 통해 본 고구려 말기의 中裏制와 中央官制」, 『백제문화』 54, 2016; 안정준, 「당대 묘지명에 나타난 중국 기원 고구려유민 일족의 현황과 그 가계 기술 - 고구려유민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제언 -」, 『역사와 현실』 101, 2016; 박지현, 「진법자묘지명 소개와 연구현황 검토」, 『목간과 문자』 12, 2014; 김수진, 「唐京 高句麗遺民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83) 2000년대 전반까지 필자를 비롯하여 김기섭, 박찬홍, 백영미, 윤선태, 김창석선생 등이 고대 경제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였으나, 2005년 이후에 이들 연구자의 경제 관련 논문의 발표가 뜸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목간에도 백제의 경제제도에 대한 정보가 적지 않게 전하고 있는 점 등을 주목한다면, 경제사 연구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향후 경제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필자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키워드는 상고사논쟁이다. 이것은 주로 고조선 말기의 중심지와 낙랑군의 위치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현재 한국고대사학계에서 고조선의 중심지이동설, 즉 초기에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에 있었다가 후기에 평양으로 중심지를 옮겼다는 학설이 널리 수용되고 있고,<sup>84)</sup> 또한 한나라가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중심지인 대동강유역에 낙랑군을 설치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널리 공감을 얻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85)</sup> 이와 같은 한국고대사학계의 통설에 대해 일부 학자는 중심지이동설과 낙랑군 평양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종일관 고조선의 중심지는 요동이었고, 낙랑군 역시 요동에 설치하였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sup>86)</sup> 그리고 일부 학자는 고조선의 중심지는 시종일관 평양이었다는 견해를,<sup>87)</sup> 일부 학자는 위만조선의 멸망시점과 낙랑군의 설치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이에 근거하여 고조선의 마지막 수도인 왕험성(왕검성)과 낙랑군의 위치가 서로 달랐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나라는 평양에 위치한 낙랑지역에 낙랑군을, 압록강유역에 위치한 왕험성에 현도군을 설치하였다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하였다.<sup>88)</sup> 또한 일부 학자는 고조선의 마지막 수도인 왕검성은 환인현 또는 태자하를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요양·본계에 있었고, 한나라가 낙랑군의 치소인 조선현을 왕검성과 별개의 장소인 평양에 설치하였다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하였다.<sup>89)</sup>

학문의 세계에서 연구자마다 학설이 다르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조선의 중심지 및 낙랑군의 위치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래에 상고사논쟁은 연구자들 사이의 학문적인 논쟁을 넘어 정치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2014년 3월 19일 국회대회의실에서 ‘식민사학해체국민운동본부’ 발대식 및 학술대회가 열렸다. ‘운동본부’는 동북아역사재단이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Early Korea Project’의 결과로 편찬된 영문 서적 대부분이 ‘북한지역은 고대 중국의 식민지였고, 한반도 남부는 고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賣國·賣史 논리의 책들’이라고 비난하였다. 미국의 연구자들과 학생들에게 한국고대사 연구성과를 소개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이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중단되고 말았다.<sup>90)</sup>

최근에 식민사학해체국민운동본부의 핵심인 대중역사저술가 이덕일은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2000, 위즈덤하우스), 『우리 안의 식민사관』(2014, 만권당), 『매국의 역사학, 어디까지 왔나』(2015, 만권

84) 노태돈,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 23, 서울대 국사학과, 1990;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이후 고조선사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각각의 입론은 약간 상이하면서도 중심지이동설을 널리 수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85) 오영찬, 『낙랑군연구』, 사계절, 2006.

86) 윤내현, 『고조선연구』, 일지사, 1994.

87) 송호정,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88) 조범중, 「위만조선의 붕괴시점과 왕검성·낙랑군의 위치」, 『한국사연구』 110, 2000.

89) 김남중, 「위만조선의 영역과 왕검성의 위치」,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에서 왕검성의 위치를 환인현으로 비정하였다가 김남중, 「險瀆과 고조선의 관계」, 『한국사학보』 61, 2015에서는 왕검성이 요양·본계지역에 위치하였다고 새롭게 비정하였다. 김남중선생은 왕검성과 조선현은 별개의 장소에 위치하였다고 이해하였다.

90) 조인성, 「고대사파동과 식민주의 사학의 망령」, 『역사비평』 118, 2017, 10쪽.

당) 등을 출간하였는데, 그는 이들 저서에서 고조선의 중심지와 낙랑군이 평양에 위치하였다고 이해하는 연구자들을 매국의 식민사학자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민족의 진정한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제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은 식민사학자들의 견해를 추종하는 매국의 역사학을 극복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덕일을 비롯한 ‘운동본부’의 핵심 인사들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편찬된 동북아역사지도에 독도가 누락되었고, 고조선 중심지와 낙랑군의 위치를 평양에 표시한 점 등을 구실 삼아 동북아역사지도를 ‘일제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을 추종하는 자들이 만든 지도’라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주장에 동조한 일부 국회의원의 압력으로, 동북아역사지도의 편찬사업은 중지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정부가 국정교과서 발행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재야사학자(일명 사이비역사학자)들의 견해를 국정교과서에 반영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한국고대사 연구자들 사이에 팽배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고대사학회와 경희대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2015년 9월에 한국고대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주축이 된 ‘젊은 역사학자들의 모임’ 등을 중심으로 학계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2016년에 한국고대사학회에서는 대중들에게 한국고대사학계의 학문성파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하여 경희대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4차례에 걸쳐 ‘한국고대사강좌’를 개최하였고, 이를 2017년 2월에 『우리 시대의 한국고대사(1, 2권)』(주류성)로 출간하였다. 한편 2016년 10월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경희대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위대한 한국고대사가 위험하다’는 주제의 시민강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sup>91)</sup> 그리고 ‘젊은 역사학자들의 모임’에 소속된 신진연구자들이 잇따라 『역사비평』에 이른바 재야사학자(일명 사이비역사학자)들 연구의 문제점과 그들의 연구에 내포된 정치적 의도성 등을 비판하는 논고를 게재하였고, 그것들을 모아 2017년 1월에 『한국고대사와 사이비역사학』(역사비평사)으로 출간하였다.

2015년과 2016년에 걸친 상고사논쟁은 학계 외부와 일부 정치가들이 한국고대사학계를 식민사학의 본령으로 매도하면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단대사』 고대편을 일독하면, 북한의 학자들이 남한학자들의 견해가 아니라 주로 식민사학자들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음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이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삼은 학자들이 일제 식민사학자들임을 은연중에 내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서 북한학자들은 그들의 역사연구가 식민사학을 극복하고 조선민족 제일주의에 입각한 역사학을 확립하는 데에 있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비판을 도외시하고 식민사학자들이 왜곡한 우리 민족의 위대한 고대사를 복원하였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덕일을 비롯한 ‘운동본부’의 핵심인사들 역시 북한학자들의 역사인식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앞에서 1990년대 이래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 따라 한국고대사학계의 연구지평이 끊임없이 확대되어 왔음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 따라 2000년 이래 식민사학자뿐만 아니라 1세대 고대사연구자의 연구성과는 학설사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으로 재평가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 한국고대사학계는 식민사학과 분단사학을 거의 극복하였다고 평가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재야사학자들이 한국고대사학계를 식민사학의 본령이라고 비판하는 것

91) 조인성, 위의 논문, 11~12쪽.

은 정곡을 찔렀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상고사논쟁을 거치면서 한국고대사학계 내부에서는 연구성과의 대중화에 대하여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다는 깊이 있는 성찰이 있었다. 학계의 전문적인 연구성과를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근래에 한국고대사학회를 중심으로 고대사 연구성과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한 것은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근래의 상고사논쟁에서 학계를 대표하여 활발하게 활동한 연구자들은 주로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진연구자들이었음이 주목되는데, 대중들과 소통하며 학계의 연구성과를 대중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신진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연구와 활동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한국고대사학계의 학문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다.

#### Ⅳ. 맺음말 - 한국고대사연구의 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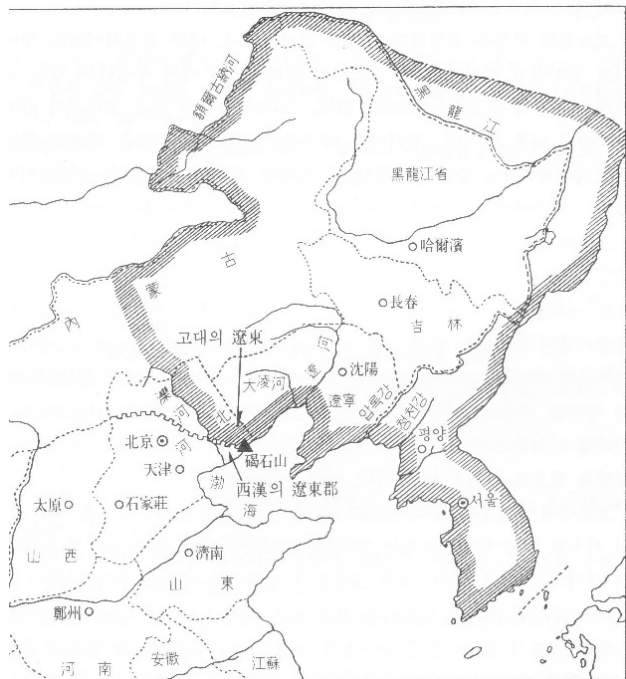
2000년 이후 남한의 한국고대사학계는 밖으로는 동북공정을 추진한 중국학계의 도전을 받았고, 안으로는 국수주의적인 이른바 재야사학자들의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내적 충실을 다지며 연구지평을 확대하여 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연구지평의 확대는 새로운 자료의 발견과 연구방법론의 개발 및 연구자 수의 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이에 반해 북한에서는 1990년대 이래 연구지평이 확대되었음을 알려주는 지표를 찾기가 그리 쉽지 않다. 오히려 1990년 이전부터 강조해온 역사연구를 더욱 더 확대 재생산하는 양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민족 제일주의에 입각한 비학문적·비과학적·자의적 역사복원에 치중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sup>92)</sup>

현재 한국고대사학계에서 이른바 재야사학자들이 국수주의 또는 강렬한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일반 대중들에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재야사학자들의 주장과 북한학계의 주장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고조선의 중심지는 평양이라고 주장하지만, 낙랑군이 설치된 지역은 요동이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재야사학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다가 僞書로 밝혀진 『규원사화』, 『단기고사』 등을 基本史料로서 적극 활용하는 연구방법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나아가 고조선이 엄청나게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서로 비슷하다. 앞에서 북한에서 비파형동검문화의 분포지역을 근거로 하여 최전성기 전조선의 영역은 한반도 전체와 요동지구, 길장지구(길림·장춘지구), 두만강 하류유역-연해변강 남부지역을 망라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재야

92) 1988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국고대사연구』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국내의 연구자는 315명이었고, 이 가운데 145명이 2회 이상 논문을 게재하였다. 창간호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 대부분이 아직도 왕성하게 연구활동을 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한국고대사를 전공하는 전문연구자는 현재 적어도 145명은 넘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로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역사과학』에 1회 이상 논문을 게재한 북한의 고대사 연구자는 121명이었고, 이 가운데 2회 이상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는 단지 38명에 불과하였다. 2회 이상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 가운데 김석형, 손영종을 비롯한 일부 연구자는 이미 고인이 되었음이 확인된다. 북한에서 고대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의 숫자가 남한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사학자들은 윤내현선생의 연구성과를 많이 인용하는 경향인데, 윤선생의 견해에 따르면, 서기전 16~14세기 이후에 고조선은 북경 근처에 있는 灤河 유역과 碣石山 지역을 중국과의 경계로 하여 지금의 河北省 동북부로부터 內蒙古自治區 동부·요녕성 전부, 길림성 전부, 흑룡강성 전부 및 한반도 전부를 강역으로 포괄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윤선생은 한반도 남부지역까지 고조선의 영역에 포함시킨 근거로서 고조선의 청동기인 비파형동검이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고조선의 단군이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 하느님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전설, 전등산의 三郎城을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전설 등을 제시하였다.<sup>93)</sup>

남한학계에서 단군릉에서 출토된 인골이 5000년 전에 살았던 단군의 유골이라고 보는 북한학계의 견해에 대해 일찍부터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다.<sup>94)</sup> 북한학계에서는 고조선이 기원전 30세기 초에, 전부여와 진국 등은 15세기 무렵에 고조선에서 분리되어 고대 노예소유자국가를 형성하였다고 이해하였다. 남한고고학계에서 중국 동북지역의 비파형동검은 기원전 12~10세기경에 출현하여 기원전 5세기까지 지속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비파형동검은 대체로 기원전 9~8세기경에 제작되어 사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sup>95)</sup> 이에 따르면, 기원전 15세기는 비파형동검을 사용하기 이전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비파형동검을 사용하기 이전 시기에 노예소유자국가가 평양과 송화강유역, 한반도 중남부지역



〈그림 6〉 고조선 후기 강역도  
(윤내현, 『고조선연구』, 일지사, 1994, 291쪽)

에 등장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비파형동검이 발견된 지역을 모두 고조선의 강역으로 이해하는 견해 역시 문제가 많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 단군에게 제사를 지낸 것은 맞지만, 고조선시대에 고조선인들이 거기에서 하느님에게 제사를 지냈거나 또는 단군의 세 아들이 삼랑성을 쌓았다는 전설 등은 역사적 사실로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이상의 언급에 따른다

93) 윤내현, 「고조선의 강역과 국경」, 『고조선연구』, 일지사, 1994.

94) 이선복, 「최근의 '단군릉' 문제」, 『한국사시민강좌』 21, 일조각, 1997; 노태돈, 앞의 논문, 1999; 이기동, 「북한에서의 단군 연구와 그 송양운동」, 『한국사시민강좌』 27, 일조각, 2000.

95) 한국고고학회, 『한국고고학강의』, 사회평론, 2007, 97~101쪽.

면, 북한학계의 견해와 윤내현선생의 견해 모두 설득력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고구려가 기원전 277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고구려본기 일부 기록의 기년을 상향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온조가 기원전 258년에 백제를 건국하였다고 수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고구려와 백제 왕계를 새롭게 조정하기도 하였음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고구려가 기원전 277년에 건국되었다고 딱히 말하긴 어렵지만,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제10 보장왕 27년 2월 기록에 ‘高句麗秘記에 (고구려가) 900년이 되기 전에 마땅히 八十 大將이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전하는 사실 및 기원전 107년에 설치한 현도군의 鎭縣 가운데 고구려현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건대, 고구려라는 정치체가 적어도 고조선 멸망 이전에 등장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고구려조에 桂婁部가 洸奴部(洸奴部)를 대신하여 왕위를 차지하였다고 전하는데, 이것은 기원전 37년이나 기원 전후 무렵에 계루부의 대표가 소노부를 밀어내고 고구려 연맹체의 주도권을 차지한 사실과 관련이 깊다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주몽이 고구려의 왕위를 차지한 이후, 고구려인들은 소노부가 왕위를 차지하고 있던 시기의 역사를 고구려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였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역사인식이 『삼국사기』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몽이 기원전 277년에 고구려를 건국하였다고 이해하고, 일부 고구려본기 기록의 기년을 새롭게 상향 조정하여 수정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여기다가 북한학계에서는 태조왕이 119살까지 살았다고 전하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기록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으며, 태조왕과 차대왕, 차대왕과 신대왕이 부자 사이로 전하는 『후한서』 동이열전 고구려조의 기록은 믿기 어렵다고 배격하였다. 앞에서 북한에서 식민사학자들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부정한 다음, 우리 역사를 왜곡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초기 기록을 그대로 믿고 신라와 백제사를 서술하였음을 살폈다. 이른바 재야사학자들도 한국고대사학계를 식민사학의 본령이라고 비판할 때에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부정한다는 사실을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음을 종종 볼 수 있다. 사료에 대한 엄밀한 비판과 치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연구방법을 일괄하여 식민사학의 잔재로 비판하는 것은 곧바로 역사연구의 본령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궤를 같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긍정하고, 그러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삼국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마치 식민사학을 극복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자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연구 태도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필자가 남북한학계의 연구성과를 상호 비교하여 검토하면서, 물론 제시하는 입론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북한학계의 견해가 1990년대에 윤내현선생이 주장한 견해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이른바 재야사학자들의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여 『규원사화』를 비롯한 여러 僞書를 기본 사료로서 적극 활용하는 것을 보고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게다가 『삼국사기』에 전하는 일부 기록의 기년을 상향 조정하여 수정한 연구성과를 접하고서는 전근대시기에 왕조국가에서 역사만들기를 서슴지 않았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였다.

오늘날 글로벌시대에 우물안 개구리식의 역사인식만을 강조해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를 키울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나친 민족주의, 또는 우리 민족 제일주의에 경도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학계와 재야사학자들의 고대사에 대한 인식은 세계화, 다원화시대인 요즘에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지나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이른바 재야사학자들의 역사인식, 그리고 조선민족 제일주의에 입각한 북한학계의 편향된 역사인식을 극복하는 과제, 그것이야말로 바로 통일시대 한국고대사학계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편향된 역사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實事求是’와 탈민족주의적인 시각에 입각한 고대사상 구축과 더불어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이 존중되는 학문 풍토의 정립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 〈참고문헌〉

#### 1. 북한에서 간행된 논저

- 강세권, 『조선단대사』(신라사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강세권, 『조선단대사』(신라사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강세권 · 최준경, 『조선단대사』(신라사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권승안, 『조선단대사』(부여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림호성 · 김혁철, 『조선단대사』(발해사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림호성, 『조선단대사』(발해사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문혁, 『조선단대사』(진국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손영중, 『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손영중, 『고구려사』 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손영중, 『고구려사』 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9.  
 손영중, 『조선단대사』(고구려사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손영중, 『조선단대사』(고구려사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손영중, 『조선단대사』(고구려사3~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전대준 · 최인철, 『조선단대사』(고조선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조선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2~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조희승, 『조선단대사』(가야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조희승, 『조선단대사』(백제사1~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채태형, 『조선단대사』(발해사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 2. 남한에서 간행된 논저

- 김광운, 「북한 민족주의 역사학의 궤적과 환경」, 『한국사연구』 152, 2011.
- 김영심, 「남한학계의 동북공정 대응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사문화연구』 39, 2011.
-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 김현숙, 「동북공정 이후 북한의 고구려사 연구동향」, 『국학연구』 21, 2012.
- 노태돈, 「북한학계의 고조선사 연구동향」, 『한국사론』 41·42합, 서울대 국사학과, 1999.
-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 양시은, 「최근 북한 고고학계의 고구려 연구동향-『조선고고연구』를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56, 2016.
- 윤내현, 「고조선의 강역과 국경」, 『고조선연구』, 일지사, 1994.
- 이교덕, 『《조선전사》 해제』, 통일연구원연구총서 94-1, 통일연구원, 1994.
- 이기동, 「북한에서의 단군연구와 그 숭앙운동」, 『한국사시민강좌』 27, 일조각, 2000.
- 이선복, 「최근의 ‘단군릉’ 문제」, 『한국사시민강좌』 21, 일조각, 1997.
- 이성제, 「북한의 고구려사 연구와 역사인식」, 『고구려발해연구』 18, 2004.
- 이영화, 「북한의 고대사 연구 경향-학술지 계량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 2009.
- 이종수, 「북한의 역사인식과 부여사로의 적용」, 『사학지』 53, 2016.
- 전호태, 「밖으로부터 시작된 위기와 기회, 2004년의 한국고대사연구」, 『역사학보』 187, 2005.
- 조법종, 「북한의 ‘대동강문화론’과 고조선인식 검토」, 『선사와 고대』 43, 2015.
- 조원진, 「최근 북한학계의 고조선 연구동향」, 『고조선단군학』 30, 2014.
- 조인성, 「재야사서(在野史書) 위서론(僞書論) - 『단기고사』 · 『환단고기』 · 『규원사화』를 중심으로 -」,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 조인성, 「고대사파동과 식민주의 사학의 망령」, 『역사비평』 118, 2017.
- 하문식, 「북한학계의 고조선 연구경향」, 『백산학보』 74, 2006.
- 한국고고학회, 『한국고고학강의』, 사회평론, 2007.

※ 이 논문은 2018년 5월 22일에 투고되어,  
 2018년 6월 15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8년 7월 2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7월 30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and Future Tasks of Korean Ancient History in South and North Korean Academia - Focusing on Research Since 2000 -**

Jeon Deogjae\*

This paper arranged the research trends of Korean ancient history after 2000 and succinctly presented the future tasks for the Korean ancient history research after reunification. Before 2000, history research of the Three Kingdoms in South Korea had been focused on the Silla's. In 2004-5, the history research of Goguryeo was invigorated in response to China's Northeast Project. After 2009, Baekje research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s the excavation surveys in Chungcheong and Gyeonggi Province have expanded and the maintenance on Baekje Historic Areas in Gongju, Buyeo, and Iksan has been increasingly carried out. Since 1990, North Korea has concentrated on Goguryeo, Gojoseon, and Balhae, and neglected Baekje, Silla, and Gaya. This can be confirmed by the facts that while the majority of the research papers in Ryoksa Kwahak(The Journal of History-Science) dealt with history of Goguryeo, Gojoseon and Balhae, there were very few papers dealing with history of Baekje and so on. After North Korea discovered the Tangun tomb in 1993, North Korea has argued that Tangun established the Gojoseon state in Pyongyang at the beginning of the 30th century B.C. and that Guryeo, Buyeo, and Jinkuk were established as ancient slave-possessing nations in the transitioning period between Early-Joseon and Later-Joseon, approximately at around 1500 B.C. Furthermore, North Korea has believed that Goguryeo, Baekje, Silla, and Gaya developed into medieval feudal states at around 277 B.C., early-3rd century B.C., late-1st century B.C., early or mid 1st century A.D., and mid-1st century A.D., respectively. Not only North Korea has used the Gyuwonsahwa, Dangigosa, and Tangunsegi which were all defined as pseudographs in South Korea to explain Gojoseon's history, but also North Korea changed the founding dates of Goguryeo and Baekje to 277 B.C., 258 B.C. and accordingly, adjusted the chronology in Goguryeobongi and Baekjebongi of Samguksagi retroactively. The research of the late-Silla and Balhae period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research of the 1980s in context. In South Korea, over 300 papers were published each year in

---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the 2000s, more than 400 papers were published annually from 2009 to 2014, and more than 500 papers were published annually after 2015.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ummarize the researches of the ancient history of South Korean academics since 2000. However, if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South Korean academics since 2000 are to be summarized by focusing on a few keywords, firstly, there has been a rise in the studies which understood the political systems of the early Three Kingdoms, Gojoseon, Gaya, and Buyeo as Bu-system. Secondly, Goguryeo and Balhae studies have been highly invigorated to counteract China's Northeast Project. Third, there have been new discoveries of various wooden tablets and epigraphs, greatly expanding the horizons of ancient history studies. Finally, there has been a lively dispute about the location of Gojoseon's center and Nakranggun, while the academia has been trying to inform the public about their research achievements. Currently, it can be said that the pseudo-historians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n scholars are conducting arbitray studies of ancient history by emphasizing nationalism and patriotism. However, these limitations are expected to be overcome by establishing an ancient ideology based on the empirical research methods and transnational point of view, and a scholarly climate in which rational criticism and alternatives are respected.

**[Key Words]**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Ryoksa Kwahak(The Journal of History-Science), China's Northeast Project, Joseon Dandaesa, Tangun tomb, Wooden Tablets, Controversy over early Ancient Korean history